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MAY 1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No. 817・818 1982년 5월7일(금) 8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May 7, & 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 알젠티나 협상용의 표시

## UN사무총장 평화군주둔 제의

## 영국 반응없어 알젠틴국민 사기고조

영국구축함및 전투기 각 1대씩을 격추, 군사적열세를 다소 회복한 알젠티나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평화적 해결에응할 용의가 있음을 알렸다.

4일 영국이 세필드 승무원 30명및 해리어전투기 조종사 1명을 잃은이후 더 이상의 접전이 있다는 보도는 없어 양측이 모두 평화적 협상을 위한 용의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가운데 5일밤 알젠티나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 "평화적 협상의 제1단계는 전투행위 즉각중지이다"고말했다.

알젠티나 정부의 제의를 받은 페레즈 유엔사무총장은 "알젠티나 정부의 평화적 노력을 환영한다. 영국정부의 반응이 나오는 대로 6일부터 즉각 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유엔은 4일 양국군대의 포클랜드지역 즉각 철수및 유엔평화군의 잠정 관할을 제안했다.

평화협상 전제조건으로 포클랜드에 주둔한 알젠틴군의 무조건철수를 주장한 영국은 알젠티나의 평화협상제의에 6일현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영국 대처수상대변인은 "아직 UN에서 통보받은 바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 구축함을 격침 사기가 오른 알젠티나 국민들이 국기를 휘날리면서 환호하고 있다. 다음의 목표는 영국의 무적함을 무찌르는 것.

## 명중률98% 의 「에」기

## 이번에는 영국의 무적함 노려

(브웨이노스·아이레스) 영국구축함 쉐필드를 격침시킨뒤 알젠티나 거리에퍼진 스로건 "쉐필드 다음은 인빈시블(Invincible: 무적함)"은 알젠티나 국민의 기분을 반영해 준다.

국방성대변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인빈시블이다. 인빈시블은 영국함대의 상징이며 이것만 파괴하면 영국의 무적함대를 우리가 무찌르는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상징 인빈시블을 향한 위협은 바로 세필드호를 격침시킨 알젠티나 공군소유의 불란서제 슈퍼·에탱다기이다.

대함정 공격성공률 98%의 에탱다기는 세필드호를 향해 2대의 미사일을 발사 그중 하나가 세필드를 관통시켰다.

알젠티나는 6대의 에탱다기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이 포클랜드 대상륙전을 성공적으로 감행하려면 바로 이 에탱다기를 없애든지 공군기지를 급습, 비행장을 파괴해야한 다는 것이 서방관측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어쨌든 알젠티나는 이미 6대의 에탱다 를 알려지지않은 비밀기지로 철수시킨것으로 보인다.

◆영국에 격침된 알젠틴 구축함 제너럴·벨그레이노의(우)사령관과 부사령관(좌)이 모자를 쓴 「알」군 상관에게서 뜨거운 포옹을 받고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 "정치범 처리에 무관심 안해"

## NYT사설, 부쉬 부통령 서울 발언환영 논평

뉴욕타임즈지는 30일자 사설에서 부쉬부통령은 이번 서울방문에서 『미국은 전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고 말하고 이것은 부쉬가 한국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것이라고 평했다.

『서울에서의 올바른 신호』제하의 동 사설은 부쉬가 서울의 반체제 교회 지도자, 학자및 언론인들을 만난 한 조찬회에서 미국이 전대통령이 정치적지도자들을 다루는 방법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적었다.

지난 3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은 『서울의 정권이 겉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애쓰는 평화로운 표면밑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조류를 나타낸 사건』이라고 이 사설은 적고 있다.

부산의 방화사건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격한 불만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 이 사설은, 한국에 수천명이 아직도 정치범으로 잡혀있고 지나친 고문에 대한 혐의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한, 『한국에서의 민주적인 반대파들이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믿게 될때 반미주의자가 생기는 것은 하나도 놀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 본사제정"명인"바둑전

## 한달간 풀리그로 펼쳐

본사 제정및 주최 토론토 한국기원 주관의 제3회 바둑 "명인전"이 다가왔다.

오는 22일부터 6월13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한국기원(653A Bloor st. W)에서 풀·리그전으로 벌어질 명인전은 6월19일 하오2시 도전권 획득자와 명인(이세주 아마7단)의 결승대국으로 판가름내며 이날 하오6시 같은 자리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

지난80년 "명인위" 쟁탈 바둑대회 설치후 2년 연승한 이세주 명인에 대한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지, 아마기사들과 바둑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상은 1~3등에 각각트로피가 수여된다. (참가비 $20)

연락처 : 한국기원(전화: 533-0168)

**오늘의 예금금리** (4월23일 부터)

| 종별 | 기간 | 신용조합 | 일반은행 |
|---|---|---|---|
| 정기예금 | 30일 | 14.5% | 13~13.5% |
| | 90일 | 15.25% | 13.75~14.5% |
| | 180일 | 15.5% | 13.75~14.75% |
| | 365일 | 15.75% | 14.75~15.25% |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社告

## 제1회 어린이야구대회

본사는 금년부터 어린이 야구대회를 주최합니다.

한인사회의 장래를 짊어질 소년들의 체위를 향상시키고, 특히 북미에서 인기 높은 야구에 대한 2세들의 관'을 북돋는 한편, 스포츠를 통한 어린이들의 아이덴티'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행사는 오는7월 토론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시및 장소는 장소가 예약되는대로 곧 발표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서"라는 이 행사의 모토에 찬동하시는 교회학교, 한글학교등 많은 단체의 참가를 바랍니다.

주최 : 토론토한국일보사
후원 :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브랜돈스포츠사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창사5주년 사상최초
대 재고정리 세일

30~50% OFF
다이야몬드
각종보석·
귀금속
일본산 진주
비취
고급시계
카나다보석
협회 회원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분수대 옆)
중앙분수대앞
979-3196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한국인의
꽃·화초
도(소)매상
Mother's Day Special
(어머니날 스페샬세일)
⊙Pot Mum's
⊙Orchid flower
⊙Mixed flower
⊙Carnation

☎ : 923-994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뉴욕·코스모스의 수문장 버켄미어가 블리쟈드 모리나의 강슛을 간신히 쳐내고 있다.

## 블리쟈드 승승장구

### 강호 뉴욕·코스모스도 2:1로

토론토의 직업팀중 유일한 승리팀은 프로축구 블리쟈드.

시즌 초반 4연승을 기록한 후 포드·나우더데일에게 1패를 당해 블리쟈드의 우승전망을 의심하던토론토 시민들에게 5일밤 뉴욕·코스모스를 2:1 로누른 것은 승리의 팀 블리쟈드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준 게임이었다.

토론토 익스비션스타디엄에서 10,740명의 축구팬이 운집한 가운데 블리쟈드는, 북미축구 최고팀 뉴욕·코스모스를 2:1로 눌러 NASL 동부조 수위의 자리를 지켰다.

이날 토론토가 기록한골은 모두3골, 한골은 자살골이었다. 양팀의 후반 종료 15분전까지 0:0의 타이트한 경기를 펼쳤으나모리나의 13야드 강슛 성공은 블리쟈드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는듯 했다. 그러나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코스모스에 맹공격에 밀린 블리쟈드 수비들의당황, 볼을 걸어낸다는것이 블리쟈드 넷트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연장전반 1분43초를 남겨놓고 블리쟈드의 중견수 크리프·칼버트의 13야드 강슛 성공! 블리쟈드에 귀중한 승리를 안겨줬다.

블리쟈드는 산호세팀과 에드먼트 로드경기를 펼친 후 오는 5월15일(토) 다시 익스비션에서 몬트리얼과 홈게임을 벌인다.

## 해밀턴 키와니스, 첼로로

### 최세라양 2위

온타리오주 옥빌 거주의 최세라(8)양이 지난 26일 해밀톤 키와니스·뮤직·페스티발에서 8세이하 첼로부문 2위에 입상했다.

작년 10월부터 첼로를배우기 시작, 6개월반만에 영광을 차지한 세라양은 최승남씨(비지니스)의 큰딸로 아버지 최씨는 "세라가 너무 부끄럼이 많아 경험을 주기위해 한번 보내 봤다. 배우는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 입상,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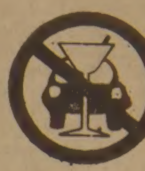
◆최세라양.

### 잡동사니 바자 센로렌스·마켓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버리기가 아까운 것들을 모아 싼값에 파는 대규모 바자가 오는 19일 하룻동안 세인트·로랜스·마켓(프론트×자비스)에서 밤10시까지 열린다.

Toronto Women's Ort (토론토여성 잡동사니) 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이 바자에는 도자기·골동품·일상용품을 비롯, 세계 각지의 치즈와 집에서 구운 쿠키, 고기등 식품, 장난감, 의류·보석류, 레코드판등 여러가지가 판매된다.

입장료는 성인 $1, 어린이·노인은 무료, 복권추첨에서 1등은 $1,000, 2등 14인치 칼라TV등이 상품이다.



## 투자용 금괴 만들어

### 블로아의 은하보석상

지난4일부터 토론토블루어 거리의 은하보석상은 투자용 금괴 매매업무를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보석가공 공장 면허를 갖고 있는 김용섭사장은 앞으로 순금목걸이, 반지, 팔지등 직접 제품을 만들 계획이며 투자용 금괴 매매업무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말했다.

단, 금괴는 1온스이상 취급하며, 익명을 요구할 때 비밀보장하며, 한국서 생산된 순금제품은 다시 본사의 순도 검열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은하보석상은 귀금속 뿐 아니라, 각종 선물용 백,가죽제품등 선물센터 역할의 비지네스도 키워가고 있다.

## 해리·벨라폰테 토론토에

### 오·킾센터서 24일 부터

〈자메이카·페이웰〉 〈바나나·보트·송〉등으로 우리에게도 낯익은 가수 해리·벨라폰테가 24일부터 6월5일까지 14차례 오킾센터에서 공연한다.

걸걸하면서 시원스런 목소리와 남미 특유의 리듬을 엮어 오랫동안 세계음악팬의 가슴을 흔든 벨라폰테는 이번 공연에서 〈마틸다〉〈라이자여 돌아오라〉등 왕년의 히트·송을 아낌없이 선사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11, $13,50 $16, $18로 나뉘며 예매는 이미 시작됐다.

입장권 구입은 VISA및 MASTER CARD를 사용할 경우 전화(698－2626)로 가능하다. $2의 써비스료를 물어야한다. 직접 매표소로 가서 살 경우 오·킾센터 박스·오피스나 각지의 BASS에서 살 수 있다.

공연시각과 가까운 BASS의 위치는 전화번호698－2626에 문의하도록.

오킾센터는 프론트& 영에 위치해 있다.

◆해리·벨라폰테

## 少數民族에 부당한差別

### 全國소수민족諮問委 司法제도결함도 原因이라고

### 總4千만명이 白人보다 낮은 賃金에 혹사당해

〈워싱턴－UPI〉 미국의 소수민족들은 사법제도의 결함으로 부당한 법적대우를 받고있으며,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인종차별을 받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수민족자문위원회는 지난 4년동안 각소수민족단체를 상대로 조사한결과 흑인및 멕시칸, 아메리칸인디안을 비롯 그외 소수민족들은 백인들보다 빈번히 체포되며, 또한 장기간 옥살이를 치르고있음을 알아냈다.

소수민족위원회는 연구조사서인 「사법제도의 불평등」에서 이런 차별제도의 결과로 미국사회구조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 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범죄증가의 문제가 불공평한 사법제도에도 원인이 있는것이므로 이런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법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소수민족인구는 4천만명으로 이들은 백인보다 저임금노동자이며, 실업자가 많고 지저분한 집에서 거주하며 또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못하고있다.

한국일보
533-2361

## 제3회 김용순 무용발표회

### 한국민속예술후원회 지원

무용가 김용순씨와 그문하생들이 한국민속예술후원회(이사장 서준경)의 지원아래 제3회 발표회를 갖는다.

오는 6월12일(토) 하오7시30분 라이어슨극장(50 Gould St.)에서 펼쳐질이번 무용발표회의 입장료는 $8, 65세 이상의 노인은 $6이다.

지난3월13일 문하생들의 학부형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한국민속예술위원회"는 이사장 서준경, 부이사장 박대조, 사무장 김정현및 20명의 이사로 구성됐다.

후원회 결성동기에 대해 이기천이사는 "다른 소수민족들과 얽혀 사는 이곳에서 한국고유의 민속예술을 소개 보급하는 일은 한사람의 힘으론 무리라는것을 깨닫고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작년에 제1회 한인민족상 예술부문상을 수상한김용순씨는 이번 공연이 앞으로 자신과 무용연구소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공연이 성공하면 4~5년이내에 토론토 제일의 연극및 오페라 장소인 오킾센터에서 공연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3회공연에는 김씨와 문하생 32명, 씨안학교 무용교사 오재윤, Y한글학교 무용교사 김정숙양이찬조출연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무용의 종합예술성을 십분발휘키위해 무대장치(담당 장기철씨)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고전무용부터 째즈댄스에 이르기까지 작품이 다양하고 몇몇 고전무용은 동작에있어서 한국무용의 소극적이고 즉흥적 감정표현위주의 두리뭉실한 동작을 탈피, 서양무용의 대담하고 큰움직임을 응용한 점이다.

요즘도 주중, 주말에 두곳에서 무용지도를 하며, 1달에 2~3번 캐네디안모임에 가서 무료로 고전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김씨는 "우리 고유예술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자란 이곳 우리 교포자녀들에게무용을 통해 한민족의 얼을 심어주고, 이곳 사회에 우리 민족예술의 우수성을재인식시키는 일이 자신의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1, 2회때는 거의 자비로 발표회 비용을 충당했지만 이제는 규모도커지고하여 더 이상 혼자힘으론 감당하기 힘들다고호소하는 김씨는 앞으로 교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도움없이는 민족예술의 보유와 소개가 힘들 것이라고 안타까와 한다.

한국민속예술후원회는이번 제3회 발표회와 앞으로 민족예술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교민들의후원금을 [illegible] 있다. 액수에 상관없이 이러한 취지에 찬동하는 교민은 아래의주소로 수표를 보내면 된다.

The Korean Heritage Association of Canada
619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K 1K8
Tel: (416)534－1085

구독신청은 (416) 533·2361

## 루돌프·제르킨

### 매씨·홀 공연

"베토벤 연주의 권위자"로 일컬어지는 "전설적 피아니스트"루돌프·제르킨이 10일(월)저녁8시 매씨·홀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이날의 연주곡목은 베토벤 소나타중 마지막 세곡인 작품 109, 110, 111 이다.

티켓은 $7.50, $14, $17.50 $25로 공연장소인 매씨·홀(슈터 & 빅토리아) 박스·오피스에서 구입가능하다.

문의는 3 63－7301

## 칼럼再湯시비

### AP·新聞社서 내용추적 폭로記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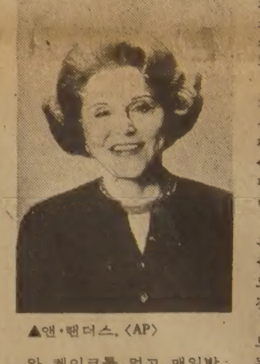
### 人生相談앤·랜더스,「우려먹기」是認

유명한 인생상담칼럼니스트 앤·랜더스여사(63)가 상담난에 이전내용을 이름만 바꿔 재사용하여 왔다해서 논란을 빚고있다.

AP통신과 포니텍신문사는 거짓편지설을 확인하기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 81년 4월부터 82년 4월까지 1년동안에 사용한 33개의 칼럼내용이 랜더스가 1966년에서 67년에 사용한 예증과 흡사한 것임을 발견했다.

랜더스의 칼럼은 세계 1천개 신문사에서 구입 7천만명의 독자들에게 읽혀지고있다.

조사결과 랜더스는 옛날 편지발신인의 이름과, 물건명칭등만 약간 바꿔 새로운 칼럼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앤·랜더스.〈AP〉

### 1천개 신문서 연재·7천만명이愛讀

### 15~16년전 쓴내용 이름바꿔썼다 들통

예로 1967년 2월22일자 어밍의 아내는 편지에서 남편이 너무 그의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하소연했다.

부인은 남편이 매일아침 어머니집에 들러 모닝커피와 케이크를 먹고 매일밤 치킨숩이나 청어요리를 먹으러 들르며, 어머니 또한 매일 밤늦게 전화해 잘 있느냐고 점검하곤 한다고 불평했다.

그런데 82년 2월22일자 컬럼에는 발신인이 밀리였으며 남편의 이름은 샘이고, 커피대신 코코아와 커피케익으로 바뀌었으며, 치킨숩은 그냥 숩으로 명칭만 바뀌었을뿐 상담내용은 모두 같았다.

랜더스여사는 이에대해 지난 18개월동안 그녀의 상담난에 15년전에 사용한 편지내용을 재사용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이 복사판 게재를 즉각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컬럼은 독자들에게 조언및 지도, 즐거움을 주기 위한것이므로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한 충고를 얻게되면, 그전달기술은 별로 문제시 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앤 랜더스의 본명은 에스더 폴린 레데러로「디어 애비」를 쓰고 있는 아비게일 밴 뷰렌(본명 폴린 에스더 필립스)과 쌍둥이 자매이다.

5월15일(토) 8시 몬트리얼·매닉

HOME GAMES AT Exhibition Stadium

| Dates | Opponents | Times |
|---|---|---|
| Saturday, May 15 | Montreal Manic | 8:00 pm |
| Thursday, May 20 | Chicago Sting | 8:00 pm |
| Tuesday, May 25 | San Diego Sockers | 8:00 pm |
| Wednesday, June 16 | Portland Timbers | 8:00 pm |
| Saturday, June 19 | San Jose Earthquakes | 8:00 pm |
| Wednesday, June 23 | Seattle Sounders | 8:00 pm |
| Wednesday, July 7 | Montreal Manic | 8:00 pm |
| Thursday, July 22 | New York Cosmos | 8:00 pm |
| Sunday, July 25 | Vancouver Whitecaps | 3:00 pm |
| Wednesday, July 28 | Chicago Sting | 8:00 pm |
| Saturday, Aug. 14 | Jacksonville Tea Men | 8:00 pm |
| Sunday, Aug. 22 | Tampa Bay Rowdies | 3:00 pm |

프로축구와 운동모자

블리쟈드 티켓을 (성인용2장) 본사에서 구입하면 선착순 20명에게 $5 상당의 대한항공(KAL) 이 제공하는 운동모자를 증정합니다.

장 소 : CNE 축구장
입장권 : $12(A석), $9(B석), $6(C석)
※학생및 유아, 노년입장권은 반액.

입장권예매처 : 한국일보사 533-2361
Brandon Sports Co.

새로개발된

광석약수 미네랄·워터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장 손쉽게 가따야마 광석으로 아주 값진 미네랄·워터를 언제나 필요한만큼 손수 만들수 있읍니다.
온 가족이 일생을 다 즐길수있는 이 광석을 가정의 보배로 생각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 지 섭 : 530·0522
아 세 아 한 약 방
(DOWNTOWN 판매처)

강 문 원 : 964·8590
(NORTH YORK 판매처)

●남 영 애 : 282·3553(오전)
284·9325(오후)
(SCARBOROUGH 판매처)

●김 성 지 (SIMON KIM)
KIMSEE DISTRIBVTORS COMPANY (총 판 매 처)
전 화 : 299·1888
281·8218

●INTERMESH COMPANY
(제 조 처)

## "에너지는 세계를 움직인다" …낙시빌 세계 박람회

# 한국관 1일 개관

## 캐나다, 미국 22개국참가, 온돌방도

세계 박람회가 「에너지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주제로 5월1일 테네시주에 있는 낙시빌에서 개막했다.
이번 박람회에 한국도 참가하여 전평 1만6천7백74 평방피트의 한국관을 건립, 모든 개막준비를 완료하고 29일 이지역 교포유지등 미국인 3백여명을 초청하여 개막에 앞선 리셉션을 갖고 첫 선을 보였다.

한국관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관과 식당으로 나뉘는데 각 관 사이에는 한미수교의 장, 테아터, 올림픽 코너, 관광관계 코너, 직매코너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관에는 VTR들이 설치되어 관계된 자료를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국관 설계에 참가한 이해묵씨가 밝혔다.
이씨는 한국관은 과거관부터 관람이 시작되는데 이곳에는 안내센터와 한국과 세계의 입체지도가 있으며 이를 지나면 2개의 진열장이 있다고 한다.
이 진열장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토기시대부터 이조시대까지의 각종 자기등과 에너지에 관련된 민속품인 화로, 인두, 신설로, 부채, 각종 등 등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사진이 전시됐다.
과거관은 한국의 재래식 온돌방을 반만 지어 그 구조를 볼 수 있게 하였으며 한국인의 생활풍속을 보여주는 시설물과 비디오 화면이 설치되어 있다.
이씨에 따르면 과거관에서 현재관으로 가는 램프웨이는 한미수교의 장으로 이곳에는 신주판 부식으로 만들어진 영문과 한문으로 된 수교장이 있으며 양국기와 높이 5미터 정도되는 에밀레 종의 모조품과 한미수교에 관련된 것이 10년 단위로 현재까지 사진등으로 소개됐다고 한다.
한미수교 전시장을 지나면 현재관.
이곳에는 한국의 산업및 경제에 관계되는 것이 전시됐으며, 제1차부터 오는 86년에 끝나는 경제개발 계획이 전시된다.
이씨는 현재관에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생산품이 전시됐는데 경공업 제품으로는 각종 전자제품, 악기,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등 다양하며, 중공업 제품으로는 금속파이프, 철판, 베아링, 시추선및 선박모형 기관차와 객차 모형이 전시됐다고 말한다.
이씨에 의하면 미래관에는 한국의 대체 에너지인 원자력발전 현황, 도시및 도로계획, 교통 통치, 해양개발 관계가 전시되며 특히 올림픽 코너를 마련, 잠실 체육관의 전경과 각종 경기모습, 호텔등 관계시설물 사진이 전시됐다.

이밖에 미래관에는 비디오 화면 15개를 설치, 현대 한국인의 일상생활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관에 설치된 테어터에서는 박람회 기간중의 각종 문화행사등을 개최하는데 현지에 와서 일하는 뉴올린즈 주재 무역진흥공사의 유대형씨는 5월17일부터 1주일간 한국주간으로 국악, 고전무용 공연과 퍼레이드 등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 기간중의 호스트는 상공부장관 서석준씨가 맡는다

식당은 각종 한국요리를 박람회 기간중 소개한다.

한국관은 홍익대학 산업미술대학원장 한도룡 교수가 설계했으며 박람회 기간중에 현지 교포들이 하루 2교대로 5명씩 6시간동안 안내등을 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개장 시간 매일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다.
자세한 문의처는 한국관: (615)971-4381

◇황폐한 기차 철도 부지위에 건설된 낙시빌 박람회장의 원더랜드가 박람회장 분위기를 돋구어 주고 있다.

## 악성腦癌치료법 開發

### 클리블랜드大병원, 神經學會에 보고 抗癌劑를 뇌속에투여 生命연장가능

〈클리블랜드-AP〉 악성뇌암을 치료하는 최신 의학법이 발견되었다.
클리블랜드 대학병원의 사시다…코리박사는 지난 주말 열린 미국신경의학회에서 자연 혈관벽을 통해 항암제를 뇌속에 침투시키는 치료법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어떤 화학요법으로도 항암제를 뇌속에 침투시킬수 없었다.
코리박사는 이 치료법으로 종전에는 방사선 및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했던 악성뇌암인 글리오블래스토마를 효과적으로 치치료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치료를 받는 환자는 생명이 4달내지 9달이 연장될뿐 결국은 죽음도 면치 못한다.
코리와 그연구 팀은 지난해 죽음을 한달 앞둔 6명의 글리오블래스토마 환자에게 이치료법을 적용한 결과 4명은 목숨이 연장되었고 한명은 치료를 중단해 숨졌으며, 나머지 한명은 다른 병으로 숨진 결과를 얻었다.

## 호首相 공식訪韓

###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 호주수상 말콤·프레이저가 23일 부터 25일까지 유창순총리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그는 한국방문동안 전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며 한국정부지도자들과 함께 공동관심사를 논의케 된다고 한국정부대변인이 발표했다.

토론토·한국일보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 宇宙空間도 滿員이다

## 인공위성發射등으로 생긴 파편 萬개이상 추정

◆우주공간에서 스위치와 각종 계기를 점검하는 콜럼비아 우주인 고든·풀러톤

지구주위의 궤도를 선회하고 있는 수 많은 폐물조각들이 궤도를 도는 우주비행사 뿐만 아니라 지상의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폐물조각들은 지난 196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을 쏘아올린 뒤 여러나라가 잇달아 쏘아 올린 인공위성, 인공위성의 연료탱크, 로케트점질 폭발로 떨어져 나간 파편조각들이다.
최근의 추산에 따르면 소폐물조각들은 1만개 내지 1만5천개에 달하고있다.
지구궤도선회속도는 시간당 수천마일.
인공위성발사와 관련, 우주공간에서 일어난 50여차례의 폭발로 생긴 조그만 미립자들은 수억개에 달하고 있어 수를 헤아릴 수 조차 없을 정도이다.

## 콜럼비아등 有人우주선 安全궤도 비행을 妨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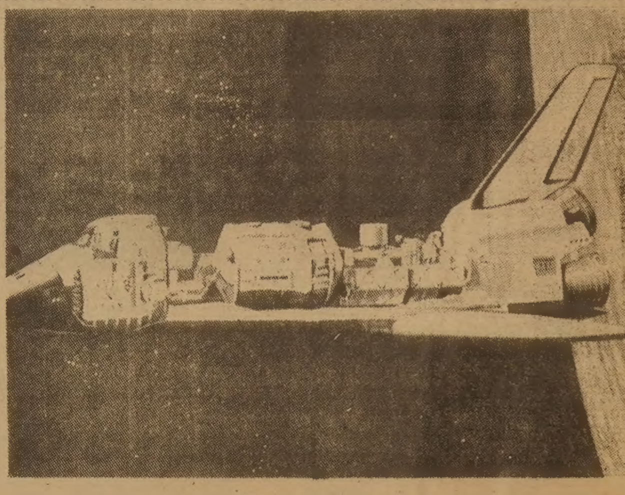
### 美항공우주국, 금후 10年內 충돌사고 위험警告

## 우주질서 해치는 폐물조각 每年11%정도 增加

우주의 폐물조각들은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다.
인간이 모험을 하는곳은 어디나 쓰레기와 폐물이 남게 마련이라고말한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기사 윌리엄·허바드는 우주궤도도예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가장 위험한 폐물조각들은 과거 10년동안에 아메리칸·델타 로케트가 우주공간에서 사고로 폭발하는 바람에 생긴 파편조각들과 소련이 소위 『킬러』인공위성을 발사한 뒤 고의적으로 폭발시켜 발생한 파편조각들이다.
이 파편조각들은 다른인공위성의 작동과 궤도선회를 방해하고 있다.
길이가 1인치의 16분의1 정도로 작은 파편조각일지라도 지구궤도선회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주선체를 뚫고 들어갈 수있다.
우주과학자들은 현재지구궤도를 선회중인 1천1백개이상의 인공위성들이 이같은 파편조각들과 부딪혀 기능을 상실하게 될가 걱정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탄 우주왕복비행기체에 구멍이뚫려 우주비행사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가 두려워 하고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폐물조각들이 지상에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최근에 두번이나 폐물조각들이 지상에 떨어지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여 이같은 우려가 한갓 걱정에 지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지난 1978년 소련의 코스모스 우주선이 궤도에서 이탈, 지구로 떨어져내려오면서 캐나다의 일부지역에 방사능찌꺼기를 뿌려놓았다.
한해뒤인 1979년 미국의 스카이랩이 지구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호주와 남태평양지역에 파편조각들을 떨어뜨렸다.

◆이것이 우주정류장이다－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재발중인 우주정류장, 8명내지 12명의 우주인이 이속에서 일하게 될 계획이라고.

이 두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지없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캐나다 내무성관리인 필립·커쉬는 우주궤도를 돌고 있는 폐물들에 대한 국제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커쉬의 말에 의하면 방사능찌꺼기들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어느땐가 도시에 방사능물질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미국항공우주비행연구소는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 폐물들이 운석보다 우주선에 더 큰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말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와같은 우주항공정책과 실행때문에 앞으로 10년내에 우주공간의 충돌사건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가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주공간의 폐물로 야기되는 위험에대한 각성이 높아지자 유엔외계평화사용위원회는 금년 봄 유럽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어떤 우주항공분석가들은 파편조각들과 부딪혀 못쓰게 된 인공위성들이 대여섯개가 있다고 믿고 있다.
펜실배니아 스테이트칼리지에 있는 스페이스텍(Spacetech)회사장 마샬·캐프런은 고장난 인공위성들이 여러개 있으나 고장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난처한 입장을 밝혔다.
캐프런은 인공위성들이 아주 작은 운석들과 부딪혀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제조되고 있으나 종종 작동을 멈추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우주궤도를 도는 파편조각들과 부딪혀 크게 파손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우주도 만원－1983년 10월 수행될 유럽의 우주실험실모형도.

지구주위의 우주공간에 인간이 내버린 쓰레기들은 지구상공 1백마일 내지 1천2백마일사이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다.
소련의 폭격기와 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국-캐나다

## 전문가들 선회파편들 國際的 통제필요성 力說

### 유엔서도 큰관심 올봄 歐洲서 對策會議 갖기로

## 商業用 위성발사로 당분간 혼잡상태 加重예상

조기경보시스템인 북미방공사령부(NORAD)는 금년초에 연방의회에서 사령부의 임무가 이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유는 우주공간에 떠도는 5천개이상의 인조물질들을 일일이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조물질 가운데는 길이가 4인치정도로 작은것도 있어 NORAD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NORAD관리들은 우주공간을 떠도는 파편조각들이 지나치게 많아 미사일탐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실토했다.
정부와 바즈니스인공위성 사용자들은 적도주위의 고정된 지구궤도를 도는 통신, 일기, 첩보인공위성들이 직면할찌지도모를 위험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통신, 일기, 첩보용 특수인공위성들은 지구의자전속도와 같은 속도로 지구주위의 일정한 궤도를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한 우주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공위성들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한관리는 이때문에 각국의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이 적도주위의 고정궤도를 이용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구궤도에서 가동중인 1천1백개 이상의 인공위성중 10%는 바로 이 고정궤도에있는 인공위성들이다.
인공위성전문가들은 앞으로 3,4년내에 2백개의 상업방송용 인공위성들이 고정궤도에 발사되어 교통혼잡을 이룰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고정궤도인공위성들은 지구상공 약3천5백마일지점을 돌고있으나 최근에 이를을5백마일 이내로 지구와 더 가깝게 발사하자는 제안이 대두되고 있다.
우주의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인간의 숙제로 남아 있다.
한가지 해결책은 유휴된 인공위성들을 더 깊숙한 우주공간으로 보내는 것이다.
또 다른해결책은 우주의 쓰레기들을 모으는 특수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다.

# 신앙의기본

## 기도란 무엇인가(1)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28 : 9)

지금까지 연4회에 걸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하에 "믿는다"는 말과 관련된 여러가지 면들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로서 믿는자의 생활 즉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여러가지 것들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복음을 믿어 예수·그리스도를 "주"라 부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롬9 : 10) 신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하게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도드리고, "기도"도 드리며, "찬송도 부르며 "헌상"도 한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그는 집에서도 성경도 읽고 고요히 기도도 드리며 찬송도 부른다.
한마디로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저 위에 열거한 종교적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종교적인 행동은 그것이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들지는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참된 "신앙인"은 만들지 못한다. 그것들은 신앙생활의 방도들인 것이다. 실체가 없는 방도가 무의미한 것처럼 참된 신앙생활로 이끌지 못하는 "기도", "찬송", "예배", "헌상"…등 역시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방도들을 무의미하게 행하던가 그 본래의 뜻을 무시하고 겉모양으로만 행할때 그것이 종교생활은 될찌언정 신앙생활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의미있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이신 본래의 의도를 따라 서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며 "교회"도 나가고 "헌상"도 해야 할것이다.

그러면 먼저 신자라면 누구나 하는 기도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것인가 등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듣지 않으시는 기도, 거짓된 기도 나아가서는 그저 종교적인행동에서 그치는 기도등을 엄히 경계하고 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를 하면 과연 응답이 오는가? 응답은 또 어떤 형태로 오는가? 기독교이외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다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것인가?…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결이 없이도 우리는 기도할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법으로 주신 "기도"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심은물론 어떤 기도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증히"여기신다는 사실은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볼때 이해가 간다.

즉 기도를 하되 청산유수와 같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섞어서 일백가지의 복을 빌면서는 또 "간절히, 간절히"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간절한 것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도한 내용 자체도 잊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이 드린 기도들을 어 주셨는지 또는 안 들어주셨는지 알아 보려고도 않는극히 무관심한 태도도 많이 본다. 그저 기도했다는 사실 즉 종교적인 행동 하나를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하나님께서 어떤"모욕감"을 느끼실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끼리 대화하며 무엇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그와같이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태도는 안 가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무엇을 구한다는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으면서 "간절히"라는 말을 연발하고 또 구한 것에 대하여 무책임하게도 무엇을 구했는지 기억도 않고있는 "거짓된"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느끼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돈을 긁어모으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즉 십일조나 감사헌금을 낸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듣는 사람 들도 그렇게 내라고 자극하는 기도를 아무 꺼리낌없이 교회안에서 자행하고들 있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사람의 마음속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지금 조용히 듣고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정말 알고있는 신자라면 어떻게 사람의 귀에 아첨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용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수 있겠는가? "실천상 무신론자(Practical Atheist)"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모욕 하는것이되고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 조차도 믿고있지 않고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실로 무서운 사실이다. 무신론자들 즉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부인하는목사, 장로, 집사,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리고 있는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고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알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종교적 황홀경에 이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들에게는 기도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저 주문을 외우듯 장시간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다보면 혼몽한 정신상태에서 얻게되는 어떤 특이 한 종교적 감정상태를 불러오는데 기도를 이용한다. 이러 한 기도는 완전히 이교적인 것으로서 우리 주께서도 그러 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 즉 "이방인(마태6 : 7)이라 칭하셨다.

그렇다면 기도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하는가?

기도는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후에는 우리와 늘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때 내 얘기만 하고 마는 것이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인 것이다. 기도를 길게하던 짧게하던 간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대답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대답은 "오냐"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니다"하시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하나님 께서 반응을 보여 주셔야 한다. 기도라는 방법을 써서 자신 의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교통하는 것이 참된 의미의 기도이다.

이교도들도 기도라는 것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기독교인들의 기도와는 본질에 있어서 다른 것이다.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해 줍소서, 해 줍소서"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복도 많지만 새 복을 더 베풀어 줍소서, 이것을 줍소서, 저것을 줍소서…"하며 자꾸 줄라만 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타 내려고만 하는 성격의 기도가 기독교안에도 얼마던지 있음을 본다. 구할 것을 응답받아서 소유하고야 말겠다는 공리적인 종교심사의 움직임이다.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한다. 복을 받기위하여 헌금도 내고 더 받기 위하여는 더내야 한다. 그러다가 죽어서는 천당가서 영원한 복을 받는다. 이러한 사상은 유치하기 짝이없는 사마니즘의 사상인 것이다. 불행히도 오늘날 한인 교회들안에 널리 퍼져있는 사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이 공리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구한 것들을 받아내는 데만 치중하는 기도는 비록 기독교인의 기도라 할찌라도 그 성격이나 차원이 이교도 들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다음호(5월15일)에 계속－

개혁장로교회(1355 WARDEN + ELSMERE 남쪽 : 예배 - 주일오후2시 : 문의 - 492-9889. 592-6142):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K 1K8
Phone: 533-7923
533-8344

## 제빵회사들 loaf당 3¢ 가격인상

### O.K. Bread는 앞으로 6개월간 변동없음

지난4월12일 온타리오주내의 주요 브레드 회사들은 빵가격을 3센트씩 인상하였다.

이에따라 협회의 자체브랜드 OK빵을 공급하는캐나다·브레드도 노동비, 포장비및 전력비의 인상등을 이유로 타브레드와 마찬가지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협회측은 현재 450mg짜리 로프당 69센트빵이 시판된후로 그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판을 시작한지 불과2개월에 불과하다는 이유를내세워 가격인상을 강력히거부하였다.

협회의 차회장과 수차례에걸친 협상을 거친 캐나다 브레드의 간부진은 협회측의 단호한 주장을 인정하는 한편 앞으로 최소한 6개월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였다.

## 포장밀크(Tetra Brik)판매성공

### Valdi Discount Store에서 최초로 시도

냉장고 보관의 필요가없는 방부포장의 Uht살균밀크가 할인판매 연쇄점인 Valdi에서 시도되어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동안 식품보관및 배달의 법규정 때문에 온타리오주에서는 시판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Valdi에서 최초로 시도하였다.

Valdi는 1ℓ짜리 Tetra Brik를 현재 69센트에 팔고있는데 시중의 일반우유가격 85센트/1ℓ에 비하면 18.8%가 싼것으로 소비자에게 유익하며 식품업자에게는 냉장시설비의 절감, 운송및 보관비의 절감, 파손품의 절감등 혜택을 준다.

이 Tetra Brik는 노년층이 많이사는 지역과 대가족층에서 인기가 있다고 한다.

## 연어(Salmon) 통조림에 식중독 독소 함유

미국식약품관리국에서는 전세계 식품시장에게 1980년과 81년중 KETCH Ketchikan에서 포장한 알라스카의 분홍색연어 통조림에 위험한 식중독독소가 함유되어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연어는 7 3/4온즈의 캔에 들어있고 Nefco－Fidalgo Packing Co.에서 포장했으며, 여러가지 상표로 시장에서 판매 되고있으나 캔의 코드와 숫자중간에"K13" 이라고 도장이 찍힌것이 바로 문제의 캔이다.

FDA는 각 식품업자및 소매업자들이 위의 상품을 Nefco-Fidalgo 에 반환하기를 희망하며 해당회사와도 이미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한편 벨지엄의 브럿셀에서는 27세의 남자가 식중독으로 사망하였고 그의부인(26)도 앓고있다고 한다. 두사람다 이연어를 먹었고 그 안에 Botulinum식중독독소가 함유되어 있는것이세균검사에서 판명되었다 한다.

(<캐나다 그로서>잡지3월호)

한국일보·토론토
533 2361

## 〈 집행부 동향〉

5/2(일) : 협회사무실 블루어로 이전—집행부 김풍수 총무, 이홍규 섭외봉사부장이 주동하여 실시한 협회 사무실이사는 집행부임원전원이 바쁜 일요일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여 예상외로 쉽게 마쳤다.

사무실 이전 리셉숀은 6월1일 예정.

4/30(금) : 코카콜라와 협상—그간 3개월 이상 끈질긴 협상을 벌여온 집행부는 협회원 650명 전원에대한 49센트/26 oz. bottle 를 코카콜라에 제의한 바 코카콜라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아래와 같은 통계를제시하면서 55센트가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강력히 주장, 차선겸 회장은"최초로 시도되는 팝회사와의협상인만큼 장래의 2보전진을 위해 1보후퇴를 하여야 할지 강경책을 시도하여야할지 의사결정이 매우 신중한 문제이다" 라고언급,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완결할 것이라 한다.

49센트—30회원
55센트—162
69센트— 7
75센트—456

계 655

## 4월중 상담처리 상황

| 대상별 | 건수 | 유형별 | 건수 |
|---|---|---|---|
| Dempster's Bread | 9 | Delivery | 12 |
| Metro News | 8 | Rebate | 12 |
| General Bakeries | 8 | Credit | 9 |
| COca Cola | 5 | Price | 7 |
| Pepsi Cola | 5 | Payment | 6 |
| Rosen Dairy Milk | 4 | Suggestion | 6 |
| Sealtest Milk | 3 | New Account | 5 |
| Silverwood Milk | 3 | Service | 4 |
| OLC | 3 | Empty Bottles | 3 |
| Neilson's Ice Cream | 3 | Legal Matters | 3 |
| Toronto Sun | 3 | Discount | 2 |
| Silverwood Ice Cream | 3 | Charge | 2 |
| Intercity | 2 | Equipment | 1 |
| York Ice Cream | 2 | Appreciation | 1 |
| Globe & Mail | 1 | Cooperation | 1 |
| Hostess Chips | 1 | Counterfeit | 1 |
| Canada Dry | 1 | | |
| Dominion Samllwar | 1 | | |
| Multimedia | 1 | | |
| Others | | | |
| TOTAL | | | |
| April | 74 | April | 75 |
| March | 78 | March | 81 |
| February | 56 | February | 60 |

## 실협교육강좌 시리즈 I

### How to build up the line of credit

—최승락 외환은행장편—

이러한 귀한 자리에 불러주어서 감사하고, 실업인협회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Bloor St.에 외환은행 블루어지점이 개점되고, 그 2층에 실업인협회 사무실이 이사오게되는데, 매일같이 서로 접촉하여 쌍두마차처럼 한인사회의 경제성장에 힘을모아서 큰 역활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의 주제인「Line of Credit」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량차주, 즉 우량기업체에게 주는 은행의특별대우이다.

담보 없이, 최고 얼마까지 돈을줄 수 있는 것을 은행이 약정해 주는것이고 이자도 prime rate와 큰차이가 없는 최저이자를 부과하므로 기업체로서는 가장 매력적이고 안전한것이다.

보통 1년을 약정은 계속된다. 사실상 이 line of credit을 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기업인에게는 사업의 입문을 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교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외환은행의 여신, 즉 대출정책은 무엇인가를 소개하면, 세계 100내 은행중의 하나이고, 정부가 100% 출자한 외환은행이 Bloor St.에 지점을 설치하는 목적이 교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자는데 있으므로 리테일 비지네스로의 결손을 감수하고, 개점되는 코뮤니티 뱅크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생활에서 대출을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담보인데, 이것을 과중하게 생각치말고, 가급적이면 신용대부를 보아서 자본금이 1,000만달러의 반인 500만달러가 불입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산(asset)이 5.000만 달러 정도에 달하고, 시간적으로 2~3년이 지나며, 수익금이 100만달러 정도의 고비가 넘어야 비로소 신축성 있는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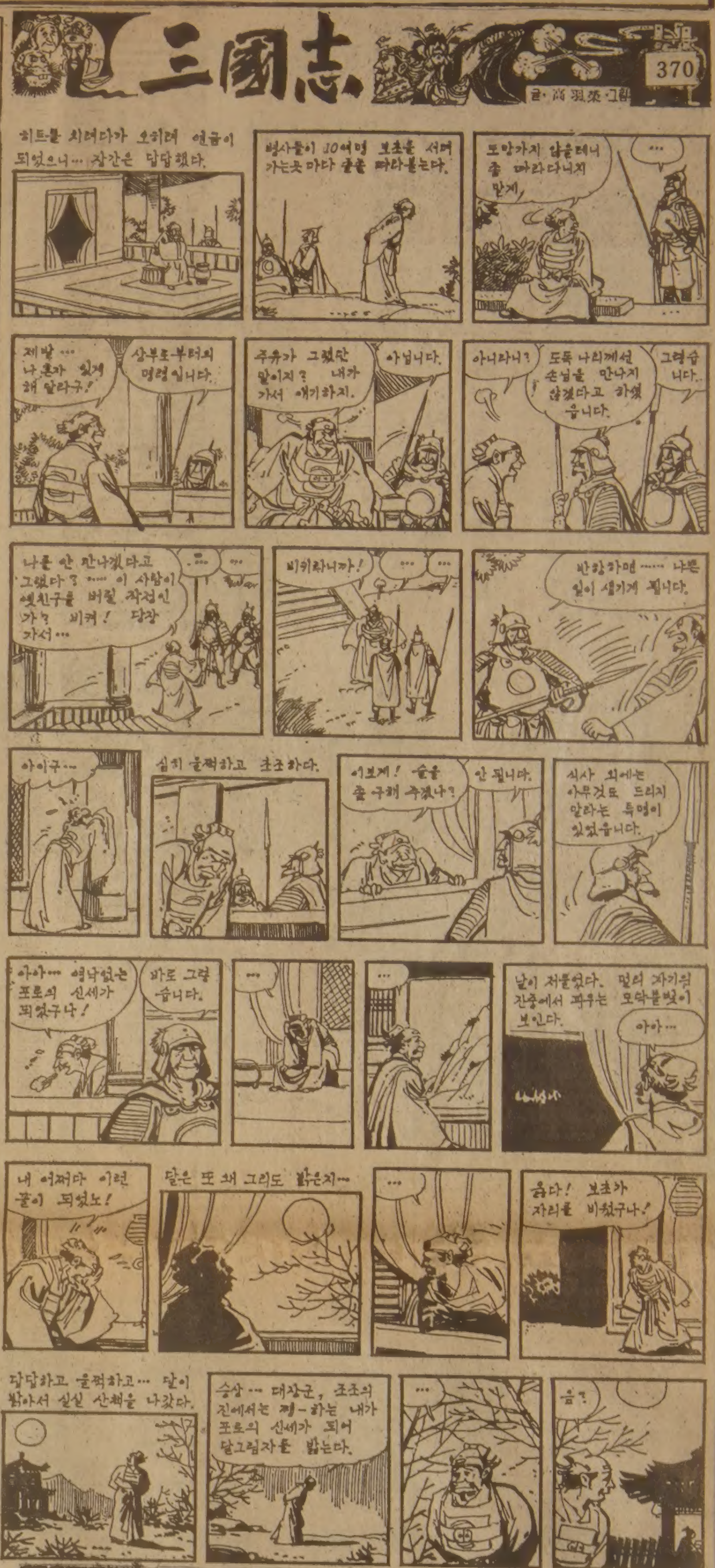
=계속=

토론토·한국일보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 기는 신문.

# 성장하는 우리 실협
# 성공하는 나의 사업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Big Chief®
Beef Jerky
1 BOX(48 PKGS) $13.10
술안주·다이엔용 스낵으로
한번 잡수어 보신분은 꼭 다시찾는
알버타산 순 쇠고기 포!
본인은 금번 본사와 온타리오주 총판권 계약을 맺고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처음 취급되는 비프 저-키를 판매중이오니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즉시 배달해 드리겠읍니다.
BIG CHIEF ONTARIO 총판
정세용 244-2483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Q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L. L. B.
Video Amusement LTD.
리베이트 $100불!
Rebate $100 협회원들에게
본사는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비디오 게임 머쉰 공급회사로서, 가장 이윤이높고, 인기가 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아울러 실업인 협회를 통하여 저희들 머쉰을 3, 4월중에 설치하시는 회원 여러분께는 첫 달에 한하여 $100불의 리베이트를 드리겠읍니다.

※카버지역 : Metro Toronto 전ONTARIO지역
※신청연락처 : 실업인협회 ☎752—7771

## 실협사무실 이전공고

실업인협회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주소 : 627A Bloor St., West Toronto, Ont. M6G 1K8 (한국관 건너편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2층)

전화 : 533—7923 533—7924 533—8344(상담실)

### 사무보조원 모집

당협회의 업무량증가와 쿠폰취급 사무의 강화를 위하여 사무보조원(여자) 1명을 모집하오니 협회 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 被擊 아르헨巡洋艦 침몰
# 승무원 919명 死亡·失踪

## 英、퀸엘리자베드號등 징발
## 步兵3천명·裝備 추가派遣

### 포群島空襲…住民11명 死亡·17명 負傷
### 유엔·EEC등 큰衝擊…곧 安保理소집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4日聯=綜】英國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전투는 3일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헤네랄·벨그라노호(1만4천톤급)가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콩커러호의 어뢰공격을받고 침몰、승무원 1천42명가운데 9백19명이 사망내지 실종되는 한편 영국의 포클랜드공습으로 포클랜드주민11명이 사망、17명이 부상하는등 대량의인명피해를 내면서 확전되고있다.

아르헨티나軍최고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벨그라노호가 3일상오2시(이하 한국시간) 아르헨티나본토 티에라·델·페고동남방 2백24㎞의 南대서양에서 침몰됐다고말하고 4일상오11시현재 1백23명의 승무원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진·커크패트릭 美유엔대사는 하비에르·페레스 유엔사무총장의 말을인용、벨그라노호의 실종승무원중 적어도 5백명이상이 사망한것으로 보고되었다고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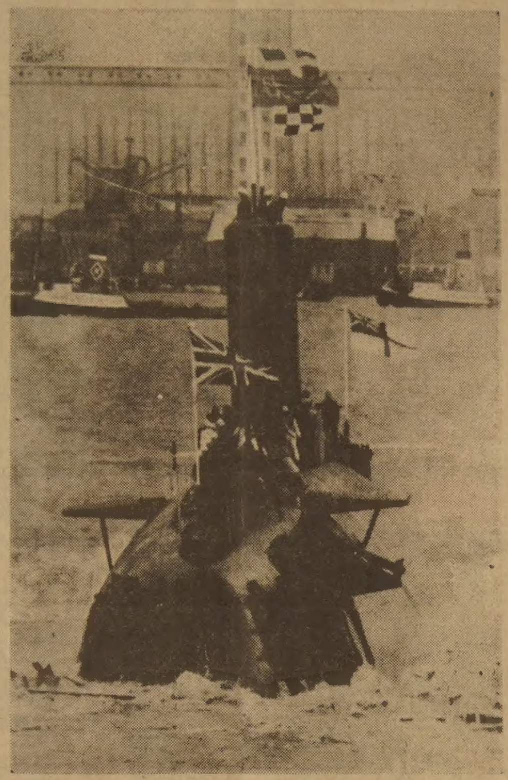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군당국은 벨그라노호가 피격된지 8~9시간후 침몰된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침몰해역에서 20~25명씩탄 여러척의 구명보트를 발견、4일낮 현재 구조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軍당국은 이어 4일에도 영국군 헬리콥터의 공격으로 아르헨티나 초계정 1척이 침몰하고 또한척이대파됐다고 말하고 아르헨티나軍에『어떤 곳에있는 영국군함을 공격해도좋다』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벨그라노호의 침몰과 대량인명피해사실은 유엔과 EEC(歐洲공동시장)등 국제사회에 큰충격을 주었으며、유엔소식통은 벨그라노호의 침몰을 계기로 유엔安保理가 곧 열릴것이라고 말했다。EEC도 4일 열리는 정치위원회에서 포클랜드분쟁을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벨그라노호 격침에 이어 초호화여객선 퀸·엘리자베드2호를 징발、對아르헨티나戰에 추가투입할 3천여명의 보병을 탑승시켜 군사장비를적재한 3척의 화물선과함께 南대서양으로출발시켰다。

이에따라 포클랜드전투에 파견된 영국군병력은 총1만5천명으로 증강될것으로 전해졌다。



◇1969년 8월28일 찍은 英國의 핵추진잠수함 콩커러(정복자)號의 모습으로 英국방성은 3일 콩커러號가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을 공격했는지 여부를 밝히려하지 않았다. 【런던 3日AP=聯】

## 英·아르헨、페루平和案 거부

【부에노스아이레스·런던3日UPI·AP=聯】아르헨티나와 영국은 3일 미국이 페루를 통해 제의한 7개항의 포클랜드분쟁평화타결안을 각각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擴戰상태에있는 양국간의 분쟁은 계속 협상타결의 실마리를찾지못한채 고조되고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집무실은 이날 성명을 발표、페르난도·벨라운데 페루대통령에 의해 전달된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의 새로운 평화안은 아르헨티나가 지난달 27일 거부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므로 수락할수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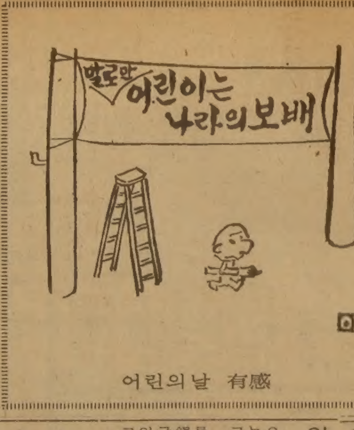
이와함께 프란시스·핌 영국외상은 귀국에 앞서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국이 7개항의페루측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을 거부했다。

한편 페레스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에두아르도·로카駐유엔 아르헨티나대사및 핌외상과 개별접촉을 연이어가진후 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 자기는 이들 양국정부지도자들에게서 평화타결을 위한결의를 발견할수있어다고말했다。

## 對아르헨 軍事지원 中南美國들 本格化

【뉴욕3日UPI=聯】브라질은 3일 포클랜드(말비나스)사태를 둘러싸고 영국과 무력충돌한 아르헨티나에 수미상의 최신예對潛초계기를 제공할것임을 확인했으며 베네수엘라와 페루도 아르헨티나에 군사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한것으로 전해졌다。

## 社會漫評




어린의날 有感

## 알제리外相 旅客機추락 死亡

### 이란·터키國境서 이란訪問길…"이라크陰謀"주장

【니코시아(키프러스) 4日 AP=聯】알제리외상 모하메드·벤야히아와 수행원들이 탑승한 알제리 민간항공기가 3일밤 이란-터키국경지방에서 추락、벤야히아외상을 포함한 탑승자전원이 사망했다고 이란관영 IRNA통신(파르스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이란외무성 발표를 인용、이란을 공식방문하기위해 알제를 떠나 테헤란으로 비행하던 벤야히아 외상일행의 탑승기가 추락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추락장소、사고원인、탑승자수에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통신은 또 벤야히아외상의 비행기추락사고가 이라크의 계산된 음모에의한 것임을 시사하는 몇가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신은 이어 사고난 즉시 이란당국아 군경사고대책반을 급파、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이란 대통령특사와 부외상이 현장에서 사후처리작업을 지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어린이에 사랑·溫情 베풀어야 人性갖춘 成人으로 成長"

### 全대통령、世界어린이마을總裁 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4일상오 청와대에서 세계 SOS어린이마을의 헤르만·그마이너총재(오스트리아人)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어린이들에게 사회와 부모가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야만 어린이들이 정상적인人性을 갖춘 成人으로 자라날수있다』고 강조하고『그렇기때문에 유아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金秉洙 보사부차관、徐正吉 한국SOS어린이마을 이사장、해닝·바우어 西獨SOS 어린이 마을이사장등이 배석했다。

### 國際卓聯 회장도

全斗煥 대통령은 4일 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국제탁구연맹(ITTF)의 로이·에반스(英國人) 회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源京체육부장관、曺相鎬대한체육회장 崔元碩대한탁구협회장 오기무라·이찌로(荻村伊智朗)국제탁구연맹수석부회장등이배석했다。

## 제百13회 임시國會 6月末로 召集연기

民正黨은 宜寧경찰관 총기亂射사건을 다루기위해 7일 소집되는제1백12회임시국회와는 별도로 각종 懸留法案을 심의하기위해 與野총무가 5월말이나 6월초 소집키로 이미합의한 제1백13회 임시국회를 6월말이나 7월초에 소집할 예정이다.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4일『宜寧사건을 다루는 국회가 따로 열리게됨에따라 5월말이나 6월초 열기로 잠정합의했던 국회를 한달 늦춰 6월말이나 7월초 소집하는문제를 검토하고있으며 곧民正黨및 국민당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5월말에 임시국회를 열경우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져 심의할 案件이 적기때문에 40여건의 법안이제출될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임시국회가소집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이어제 113회 임시국회가 소집되기전까지 常任委를 계속열어 정부가제출는 각종 입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면서『정부는 4월여12개、5월에10개、6월에 17개등 40여개의 법안을 국회에제출토록 되어있으나 법안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李총무는『6월전에 稅收결함推計가 확정돼 追更예산의 제출등 정부의 방침이밝혀지게될것』이라며『제113회 국회의會期는 20일정도가 될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DMZ內 挑發조사 中監委가 專擔토록"

### 停戰委 유엔側대표 제의

【板門店=中鉉錫기자】군사정전위 유엔측수석대표 제임스·G·스톰스소장은 4일『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지는 쌍방의모든 군사도발은 중립국감독위가 책임지고 조사할수있도록 하자』고 공산측에 제의했다.

스톰스소장은 이날 공산측 요청으로열린 제4백12차 정전위본회의에서『비무장지대내의 군사도발이나 무장행위등을 방지하기위해 쌍방군대로 구성된 공동감시소조가 조사활동을 할수있도록 돼있으나 공산측이 이기구의 활동에 응하지않아왔다』고 지적하고『이에따라 쌍방이 서로 다른 독자적인 조사결과를 통고 엇갈린주장만을 되풀이해왔는데 앞으로는 중립국감독위에 모든 조사의 책임과 권한을 맡기고 그결과를 바탕으로 DMZ내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자』고 말했다.

스톰스소장은『중립국감독위가 조사를맡게되면 쌍방의 군대가 상대방지역에 들어가야하는 모순도 없어지게된다』고 말하고『이를 위해 정전협정을 수정,중립국감독위의 기능에 조사활동을 추가하도록 하자』고제의했다.

그는또 정전협정은 그동안 27차례 부분수정을 해왔고 최근 증대되고있는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충돌 사건을 예방하기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산측에 촉구했다.

## 임시國會 7일召集

### 會期닷새 「宜寧사건」만 다루기로

宜寧경찰관亂射사건을 다루기위한 제112회 임시국회가 오는 7일부터 5일간의 會期(일요일포함)로 열린다.

民正·民韓·국민등 각黨은 지난 30일 국회 內務委에서 다룬 宜寧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이번국회에서 추궁하기위해 對策회의를 갖는 한편 각분야별로 발언자를 선정、전문분야별로 分擔시키는등 다각적인 院內대책을 강구하고있다.

民正黨은 오는 7일상오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112회 임시국회對策을 논의할 예정이다.

尹碩淳사무차장은 지난주 국회內務委에서 다뤄진 것은 사건직후여서 현장중심의 실무문제가 주로 論議되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次元에서 다뤄질것이라고 말했고、柳尙吳의원은 西部 慶南의 落後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여실히 드러난 이상 지역간 발전의 不均衡문제도 지적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民韓黨은 4일 상오 확대간부회의와 당무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6일상오 擴大간부회의와 정책심의회·총무단·본회의 발언자회의를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柳忠瑨총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宜寧사건은 사건자체뿐만 아니라 사건의 背面에 가린 구조적인 요인과 低邊의 흐름을 파악해 철저히 추궁토록하라』고 지시하고『특히 경찰자체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林鐘基총무는『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던 黨論은 不變』이라고전제、『단지 정부측의 보고를 들은뒤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또『전체공무원의 사명의식과 기강확립에따른 대책및 정부의 대국민사과 측구문제를 비롯,공무원사기앙양책 공무원교육문제 일선공무원의 연고지배치등 제도와 신분보장 대책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당은 6일상오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대책을 협의한다.

李東鎭총무는 4일『6일의 의원총회에서는 국회본회의와 5개상임위에서 추궁할 문제점등을 집중협의하게된다』고 말하고『특히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시행해야할 문제점제시와 사건재발방지책 강구등에 역점을 두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임시국회 日程은 다음과같다.

▲7일=本회의 정부보고 및 對정부질문 ▲8일=本회의 對정부질문 ▲9일=休會 ▲10일=운영·내무·법사·국방·보사위 ▲11일=本회의 對정부 건의안 채택

## 프레이저 濠首相 23일訪韓

◇프레이저首相

멜버른·프레이저 濠洲수상이 劉彰順국무총리초청으로 오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4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프레이저수상은 訪韓기간중 全斗煥 대통령을 예방하며 劉총리와 盧信永외무장관등 정부관계자들과만나 양국의 합작투자와 기술협력에의한 石炭을비롯한 資源공동개발등 자원협력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프레이저수상의 이번 訪韓은 67년 해롤드·홀트수상의 訪韓에 이어 濠洲수상으로서는 두번째이다.

濠洲는 6·25때 1만7천명을 派兵한 參戰國으로 53년 한국이 駐시드니 總領事館을 개설한데 이어 61년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 임시國會召集 공고

丁來赫국회의장은 4일상오 제1백12회 임시국회를오는 7일 하오2시 개회한다고 公告했다.

丁의장은 국회공고 제4호를통해『李鍾贊 林鍾基 李東鎭의원외 1백9명으로부터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 地平線

1904년2월 노일전쟁도 태평양전쟁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일방적인 기습으로 시작됐다。9년전 이 땅에서 淸軍을 몰아낸 일본은 영국을 등에 업고 러시아를 몰아내는 도박에 나선 것이다。이 땅에서는 일본군의 총칼에 쫓기면서 일본군의 식량과 보급품을 지게에 지고 실어나르는 굴욕과 통한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었다。▼극동의 제해권을 확보하기위해 지구를 반바퀴 돌아 대한해협까지 온 러시아의발트함대는 이해 5월27일 거제도 앞바다에 나타났다。승무원들은 지칠대로 지치고、배밑에는 이끼가낀채 구멍까지 나있는 상태였다。이에대해 일본 연합함대는 영국제 군함으로 그옛날 이순신장군이 함대를 숨겼던 거제도서북단 송진포에 숨어있었다。일본함대는 이날 첫 싸움을 건뒤、이틀날 울릉도 근해까지 끌고 갔다。▼울릉도 앞바다에서 일본 연합함대는 한 줄로 늘어선 채 러시아발트함대를 차례차례 물 속에 처박았다。그래서 울릉도 앞바다에는 금덩어리를 간직한 채 가라앉은 보물선이 있다고 한다。이 보물선을 건져서 한몫 잡자는 노다지꿈이 화제가 된 일도 있었다。그러나 이번 세상에 알려진 노다지 꿈은 기껏해서 2억5천만원짜리다。▼거제군은 일본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아 일본함대의 승전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다고 한다。정확하게 말하자면 해방과 함께 두동강이 난 기념비를 다시 세워 복원한다는 것이다。서울에 있는 한일문화교류협회라는 단체의 주선으로 돈을 받아 3천평의 땅을 사고、폭 5m의 길을 5리나 닦는다는 계획이다。『굴욕의 역사를 되살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이 비석은 일본 연합함대사령관이었던 東鄕平八郎의 출전명령제1호를 그의 붓글씨로 새긴 것이다。1904년에 세워 해방후 동강난채 거제경찰서 창고에 처박아둔 것이었다。굴욕의 역사를 되새기로 말하면 아닌게 아니라 뼈에 사무칠만큼 굴욕적인 유물이 아닐수없다。그것도 일본의 돈으로 복원한다니 그이상 굴욕적일 수가 있을까。▼굴욕의 역사를 되새기자면 방법도 한두가지가 아니다。독립지사를 고문한 경찰서 하나 보존하지않고、그숱한 의병들의 전적지하나 보존하지 못한채 일본해군의 승전기념비를 복원 하겠다니 충격과 굴욕을 또한번 당하는 꼴이다。울릉도 앞바다에서 보물선을 건지겠다는 전 순전한 장삿속이겠지만、2억5천만원짜리『굴욕의재획』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구독신청은 533-2361



제3회

김용순 무용발표회

○ 일 시 : 1982년6월12일(토)
○ 장 소 : RYERSON THEATER
43 GERRARD ST. E.
(YONGE & GERRARD)
○ 입장료 : A석 $8.00 B석 $6.00
○ 판매처 : 미도파백화점(536—1692)
킴스카메라(534—1085)
노년회(노년회 회원에 한해선 A석을 $6.00에 드림) (755—8079)
각 식품점

잔조출연 : 오재윤, 김정숙
출 연 : 김지현, 이민경, 서은정, 송유미, 박쏘냐, 이은미, 김미라, 장진이, 김영임, 김소영, 서혜승, 이 경, 이수경, 정은미, 최후로라, 김영희, 곽아나, 곽수미, 박정화, 손스지, 손진희, 강윤숙, 강진경, 강명진, 김은경, 김은진, 장쥬리아.
도움주신분 및 단체 :
유영갑 100불 서준경 100불 이기천 100불 김병권 100불
최우덕 100불 곽정열 100불 김춘타 100불 한용석 50불

※도움을주신분이나 단체는 미도파백화점이나 킴스카메라로 연락바랍니다.

주최 : 한국민속 예술 후원회
후원 :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노년회, 코리아타운번영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라이온즈클럽, 영리무역, 서울여행사, 배재동창회, `88올림픽후원회

# “꽝” 乘務員은 落葉처럼

## 침몰된 아르헨巡洋艦…그最後의 現場

### 어뢰 2發에 두동강

### 英艦隊서도 구조작전 펴

### 아르헨 “作戰地밖의 만행”

악마같은 파도는 사람을 슴 9백19명을 삼키고도 성이 차지 않았다。

귀를 베어 갈듯한 남태평양의 찬바람과 10미터를 넘는 거센 파도가 벨그라노호의 비극을 재촉하고있었다。

1941년 일본군의 眞珠灣기습에서 살아나 질기고 긴 목숨이라던 벨그라노호는 운명의 날인 3일 영국이 선포한 작전구역 57·6㎞외곽을 경계하고 있었다。정확한 위치는 남위 55도24분 서경61도32분해역、북위로치면 모스크바나 사할린북쪽 오츠크해의 초겨울만큼 추운곳이다。

두 마리의 고래가 선체에 와닿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배는 동강이 나고 선원은 나뭇잎처럼남태평양의 차디찬 파도위에 흩뿌려졌다。

30㎞거리에서 영국의 핵잠수함 콩커러 (정복자) 호가발사한 2발의 타이거피시 어뢰가 벨그라노호를명중시킨 것이다。

벨그라노가 침몰됐다는 첫발표는 아르헨티나군사령부에서 나왔다。벨그라노의 침몰여부에 관한 상보를 유보했던 영국도 유엔주재대사 니콜라슨을 통해 이사실을 확인했다。

아르헨티나는『벨그라노호가 영국이 선포한 소위 작전구역 57·6㎞외곽에있었다』고 지적하고『벨그라노호에 대한 영국군의공격은 적대행위 중지를 규정한 유엔안보리 결의 502號에 대한 악랄한위반이라는 정부성명을 4일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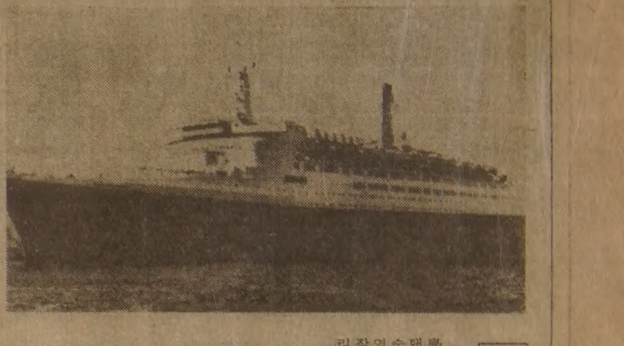
벨그라노호가 침몰했다는 공식발표와 함께 南美의 산유부국 베네수엘라정부는 아르헨티나에 미라지機부품을 제공키로 공식결정했다는 아직은 확인이안된보도가 나오고있다。

벨그라노호의 침몰이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 아르헨티나정부는『아르헨티나의 해군함정들이 침몰해역으로 항해했으나 파도가 10미터이상으로 높고 바람이 사나와 구조작업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포클랜드기동함대에서도 벨그라노호 승무원구조작업에 나선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몇명이 영국함정에 의해 구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영국함대의 기함인 항공모함 허미즈호에 승선하고 있는 영국 TV방송의 한기자는 영국의 함대사령관이 승무원구조명령을 한대에 내렸다고 런던으로타전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 벨그라노호가 침몰했다는 정부성명에서『영국의 무력행사에 대해 오직 무력으로 응답할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벨그라노호의 충격파속에서 영국의 존·노트국방상은 4일『영국은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에서 철군할때까지 협상노력과 함께 군사압력을 가중시켜갈것』이라고 밝혀 전투행위의확대를 분명히 했다。그는또 EEC회담차 브뤼셀로가 미국 와인버거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영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英國정부가 南大西洋으로의 兵力증파를 위해 징발한 호화여객선 퀸·엘리자베드Ⅱ號의 위용。이 여객선은 제5보병여단병력을 싣고 포클랜드근해로 출발할 예정이다。【사우댐턴(英國) 4日UPI電=聯合】

### 「탈환작전」시나리오를보면

### 艦砲엄호·突擊隊투입

### 英의 다음目標는 西포클랜드 上陸

함대가 南進—사우드·조지아島점령—海空봉쇄—포트·스탠리 공항공습—아르헨티나 순양함격침등으로 이어지는 영국의 포클랜드군도「탈환」작전은 일련의 예정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고있다。

영국국방관계뉴스에 정통한것으로 정평이있는 영국국내통신 프레스·어소시에이션(PA)은 포클랜드「탈환」작전의 시나리오를 다음과같이 보도했었다。

먼저 포클랜드군도 주변 2백마일에 대한 전면봉쇄령이 발효됨과 동시에 구축함、프리기트함등 對空미사일과 강력한 레이다를 장비한 한대가 해상을 포위하고 한모허미즈와 인빈서블 주위는 對空砲、對空미사일을 배치、요새화하며 해리어機가 공중경계를 맡는다。

또 스플렌디드、세이프터、스파르탄、콩커러등 핵잠수함 4척은 바다밑에서 아르헨 함선의 접근을저지한다。

이단계서 아르헨티나가 굴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않을경우 다음단계가 東포클랜드의 포트·스탠리공항공습이다。공습의 주요목표는 同비행장에 대기중인 미라지Ⅲ전투기3대와 C130 허큘리스수송기2대、탄약고、레이다、미사일시설및 활주로파괴다。

스탠리공항을 폐쇄시킴으로써 포클랜드군도를 아르헨티나 본토로부터 적극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영국의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

시나리오는 포클랜드 상륙작전을 다음행동으로 예시하고있다。상륙지점은 西포클랜드의 某處。척당 1백명씩의 돌격대를 실은 상륙주정이 해안으로 내닫는 동안 구축함과 프리기트함의 함포사격과 해리어機의 공중폭격이 뒤를 엄호한다。여기에 7·62㎜기관포와 로키트포로 무장한 헬리콥터 공격이 뒤를 잇는다。상륙 지점이나 적의 수비위치등에대한 탐사는 영국해병대특수부대(SBS)가 이미 완료해 놓았다。

상륙작전과 함께 SBS는 아르헨사령부및 통신시설、탄약고를 기습、아르헨군의 반격능력을 사전제거한다。

한편 함포지원을 등에업은 상륙작전말고도 아센션島에서 수송기로 공정대원을 공수、직접 낙하침투하는 방법도 고려된다。

그러나 영국이 상륙작전을 감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制空權 制海權이압도적으로 우세한 상륙부대、보급능력、양호한 기상조건등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보면 영국이 制空權、制海權은 유지하고있지만 나머지조건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보통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려면 수비하는측의 3~4배의 전력이있어야한다고 전투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포클랜드에 주둔하고있는 아르헨군은 약1만。이에 비해 영국이 현단계에서 동원할수있는 상륙부대는기껏 4천명정도다。

날씨도 좋지않다。현지보도에 따르면 기상이 점점나빠져 상륙작전 감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이라고한다。

영국함대는 일단 스탠리공항파괴로 본국에서떠난 보급선을 기다리며 상륙작전을감행할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아르헨측도 앉아서 당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美정보소식통은 스탠리공항 활주로가 대파되기는했지만 활주로가 좀 짧거나 고르지못하더라도 착륙이 가능한 수송기는 아직 이를 이용할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직 포클랜드와 아르헨본토사이에 공중교통이 있었다는 보도는 없지만 포클랜드의 보급이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되면 전쟁은 장기화될는지 모른다。

전투가 장기화할경우 가장 큰 부담은 戰費문제。이밖에도 국내외의 각종문제가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기때문이다。

【朴永諳기자】

# 포클랜드의 砲煙 짙어만 간다

◇아르헨티나對空砲사수들이 2백해리 포클랜드「전쟁수역」근처의 아르헨티나 남해안에 정박중인 해군함정에서 40밀리 보포르포를 조작하고있다。【코모도로·리바다비아(아르헨티나) 4日UPI電=聯合】

### 포클랜드 通信

○…포클랜드 탈환작전을 펴고있는 영국기동함대는 서방분석가들이 예측했던 대로 지난 20년간 눈부시게 발달한 미사일·전자장비·방어체제등으로 무장하고 새로운차원의 海上및 空中戰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의 기동함대는 2차대전이 끝날 무렵인 35년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42년전 미국과 일본함대가 서로 태평양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맞붙었던 미드웨이해전때와는 달리 오늘날의군함및 전투기들은 각종 새로운 무기및 장비들로 무장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아르헨티나와 영국함대 모두 미국·영국·프랑스무기업자들이만든 대동소이한 전자미사일발사체제로 무장하고있어 지평선에 채나타나지도않은 적의 목표물들을『탐지』할수가있고 말할것도없이 아직까지는 양측 모두 그들이 동원할수있는 모든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고있다。

아르헨티나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5척의 미사일발사 프리기트艦은 40년대에 제작된 노후함정들이나 아르헨티나軍은 이들에 艦對艦및 對空미사일들을 적재、현대화시켰다。

○…영국기동함대가 겁내는것은아르헨티나공군。과22대의 수직이착륙 해리어제트전투기들 밖에 보유하지 못한 영국기동함대는적어도 아르헨티나제트전투기 1백23대와 맞서야하기 때문이다。

이 1백23대의 전투기가운데는 다소 구식인 美製 스카이호크機 68대도 포함돼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밖에 19대의 프랑스製 미라지Ⅲ전폭기와 이와 유사한 대거전투기 26대를 보유하고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공군의 문제점은 영국함대가 아르헨티나기지들로부터 적어도 3백60마일이나 떨어진 먼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전략가들은 현대 해전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이들 두나라의 포클랜드전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最新의 電子장비戰양상

### 地平線에 안나타난 目標추적도

### 헤이그、“自由세계利益에 危害”

○…헤이그美국무장관은3일 포클랜드영유권분쟁을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무력충돌사태가 미국과 서방의 이익、나아가서는 자유세계의 이익이걸린 중대한문제라고 경고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誌와의 회견에서 포클랜드사태가 자칫하면 스페인語圈국가들과 영어권국가들간의 대결로 확대될수있으며 식민주의·제국주의 對 자결주의·민족독립주의간의 대결이라는『고전적 남북분쟁』으로 번질가능성도 있다고경고했다。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를 둘러싸고 영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어려움없이 외채상환을 계속할 것이라고 호르헤·부스타만테 아르헨티나 경제차관이 3일 말했다。

부스타만테 경제차관은 이날 방송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 경제성은 외국차관도입과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외국채권자에 대한 이미지악화를 막기위해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마련、레오폴도·갈티에리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말했으나 구체적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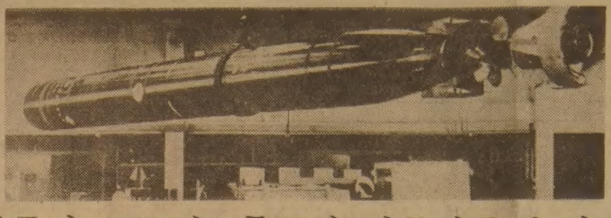
### 타이거·피시 魚雷의 正體

영국정부는 아직도 벨그라노호를 공격、5백여명을 水葬시킨 잠수함과 어뢰의 제원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기동함대에 승선한 보도진들이 이를 밝혀냈다。

벨그라노를 공격한 잠수함은 11년전 영국해군에 취역한 헌터·킬러급 해잠수함 콩커러(정복자)호。어뢰는 10년전 영국해군이 장비하기 시작한 최신 타이거·피시로 밝혀졌다。

타이거·피시는 컴퓨터를 부착한 영국잠수함대 주무기이다。일단 발사 목표물에 접근하면 컴퓨 유도시스팀이 스크루나 체에서 나는 소리에 감응을 일으켜 시속80킬로로 적을 자동으로 명중시킨다。

이번에 침몰된 벨그라노호는 배가 낡아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타이거·피시어뢰에겐 명중시키기 쉬운 표적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순양함헤네랄·벨그라노호를 격침시킨 타이거·피시어뢰。

### 컴퓨터로 조정… 목표에 자동명중 능력

### 소음좇아 30㎞밖에서도 敵艦폭파 가능

가공할 위력의 타이거·피시는 길이 6·5m、무게 1·5톤、1개당 가격은 90만달러。

타이거·피시를 발사한 영국의 핵잠수함 콩커러호는 水中에서도 28노트의 속력을 내며 1백명이 승선하고 있다。

潛行할때 거의 소음이없어 최신음향탐색장비로도 위치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알려지고 있다。

영국이 최신핵잠수함과 어뢰를 포클랜드전투에 동원하고 있는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구식 디젤잠수함과 2차대전시의 관성유도 혹은 유선유도 어뢰로 대응하고있다。

타이거·피시는 목표의30㎞밖에서 발사되더라도 표적을 명중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가공할 무기다。적함이 잠수함을 발견하기전에 어뢰를 발사해버리는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항공모함을 제대로 운용하지못하는 것도 영국의 핵잠수함과 타이거·피시 어뢰때문이다。

아르헨티나가 만약 항모를 제대로 운용할수만있다면 우세한 공군력의강점을 최대한 발휘할수가 있을것이다。

단 2발에 1만3천6백45톤의 벨그라노호를 침몰시킨 타이거·피시의 위력은 2차대전후 개발된 현대무기의 위력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 西歐、對英지지에 反論일어

### “위신을 理性보다 위에 두는한 悲劇의 銃聲은 계속될 것이다”

### 經濟制裁 공식同調에도

### 희생늘자 事態악화非難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분쟁이 전면전사태로 치닫고 있는가운데 EEC(歐共市)제국들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무기수출금지등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공식적으로 영국을 지지하고 있으나 인명희생이 늘어나는등 분쟁이 겉잡을 수없이 악화되자 영국지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영국의 선제공격은 평화적해결을 원하고 있는 EEC제국에 새로운 문제를 던져줬다고 EEC소식통들은 말하고 있다。

EEC각료이사 회의장인 레오·틴데만스벨기에외상은 3일『EEC의 영국지지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라고말했으나『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오히려 영국관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EEC국가중 특히 서독언론에서 자국의 對英지지입장에 우려를 나타내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슈피겔誌는 슈미트서독수상이 지난주 각료회의 석상에서『무조건 영국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것을 인용、보도했다。그러나 정부측에서도 이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서독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서독외무성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제네랄·안차이거紙는『영국이 약간의 유연함을 보이고 유럽과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압력을 가했다면 포클랜드 분쟁은 보다 잘 해결될수 있었을 것이다。위신을 이성보다 우위에 두는한 총성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영국정부를 비난했다。

또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紙는『포클랜드 위기의 확대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 이 충돌로 인해 남미국가들에 反유럽감정이 거세게 휘몰아칠것이 틀림없다。이러한 결과는 소련에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다』라고 영국의 무력사용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탈리아관리들은 對英지지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분쟁의 평화적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미라노의 보수지 일·지오르날레·누오보紙는『영국의 무력해결방침은 사태만을 악화시키고 소련에 이익만을주게될것』이라고 말했다。

EEC의 확고한 영국지지입장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른다。

【崔海雲기자】

### 메아리

### 18세 遊興

사람이 성년의 문턱을 넘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른의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비중의 의미를 지니는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성세대들이 이룩해 놓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분야에 걸친 열매에 기대어 성장하면 되던 처지가 성인이 되는 그날부터 사회에 보탬이 될 창조활동에 스스로 참여해야 하게마련이다。

그런 안목에서 생각할때 성년의 문턱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그나름대로의 다짐이 단단해야 하겠거니와 사회주변의 인도도 훌륭하여 그참가를 위한 제대로의 사전학습이 있어 마땅함직하다。

한데 근래 서울시는 느닷없이 아직 성인이전인 만18세 하이·틴 또래때부터 그들의 유흥업소、즉 술집·고고클럽·다방출입을 자유롭게할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보건사회부에 했다는 소식이다。

이유인즉 우선 민법상 성년은 만20세로 되어있으나 징집연령이 18세로 낮추어졌고 또 이법이 제정된 30년전 당시보다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연령이 높아진만큼 사회통념에 따르고자 한다는 것이다。

민법이 제정된 30년전 세태에 비하여 식생활의 개선등으로 청소년의 신체 발육이 괄목할만하게 된것은 사실이다。하지만 그에따라 정신연령이 반드시 올랐는지는 우리로서 얼른 단정할수가 없다。

설사 양면에 걸친 성장이 있었다할지라도 유흥업소 출입인정연령인하문제는 그런 시각에서만 다루어질 일은 아니다。현실을감안하여 적절하다는 일부의 의견도 없지는않겠지만 고교생들이 그 아니라도 머리를 기르고 제복도없는 판국에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경우 새세대들의 인격형성、교육발전에 미칠 부작용 현상은 어떠할는지— 당로자들의 대답이 궁겁다。

또 우리사회가 당면과제로서 오랜생활속의 부조리를 일소키위한 의식개혁운동을 널리 펼치고있는 이마당에 그런건의가 나온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건의를한 행정기관도 이같은 새개혁추이와 무관할수는 없을터인데 젊음들을 서둘러 성인의 문턱에서 유흥업소로 출입케하고 유흥업소로 하여금 그무슨 통과의례의 무대로라도 삼으려는 듯한 인상이 빚게하는 것은 천만 뜻밖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수많은 성인연령이 18세로 낮추어 진다고 해도 그들의 몸과 마음은 유흥업소의 출입인정 아닌 보다 심신한 지향점을 지니도록 사회는 배려를 해줄일이다。내일은「성년의날」이다。

### “남북 國力격차가 統一의 주요變數”

### 孫통일원장관

孫在植통일원장관은 4일 韓半島의통일에 영향을 미칠 주요變數는▲남북한國力의隔差와 한국안보상황▲北韓내부의 권력구조、경제사정、이데올로기 偏重派와 테크노크라트간의 세력관계에따른 내부사정의변화▲北韓의 對中·蘇관계와 中·蘇의 對한반도정책▲韓·美공동방위체제의 鞏固등을 들었다。

孫통일원장관은 이날 全經聯 제5기 최고경영자 과정의 초청연사로 참석、이같이 밝히고 南北韓간 國力의격차는 80년대에 점차 증대되고 北韓은 군사비부담의 輕減및 폐쇄사회의 개방이없는한 경제사정이 악화돼 심각한국면에 빠져 和戰택일의 기로에 직면하게 될것으로예상했다。


# 한인 임마누엘 교우여러분께

장기간 본 교회내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교포사회는 물론 교계에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미 지상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4월25일 카나다 연합교회 토론토노회장 으로부터 본교회 전교인에게 직접 통보된 내용대로 분규는 종료되었읍니다.

그것은 본교회 임시목사로 시무하던 조창환 목사의 연합교회 정 회원 목사로서의 자격이 신중히 검토된후 그 가입이 거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임마누엘 연합교회속에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것을 믿어 온교우가 함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온갖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굳게 뭉쳐 활동해주신교우들과 항상 음양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2일 주일에 있었던 본교회 임시공동회의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결의를 밝힘으로서 오도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공동회의는 토론토 노회장과 ZONE의장, 그리고 감독목사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참석했었읍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창환 목사는 스스로 당일자로 임마누엘 연합교회 목사직을 사임한다는 신상 발언후에 의사진행을 전모장로에게 위임하려하자 노회측에서 임시공동회의를 주관해야 한다는 교회법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하려고 하여 노회측은 본 회의는 불법이라는것을 통보하고 임시공동회의는 5월16일로 연기한다는 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떠났읍니다. 그러나 조목사의 연합교회 가입 거부에이성을 잃은 일부교인들이 사전에 준비된 유인물을 낭독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불법결의 하였읍니다.

첫째 : 한인임마누엘 연합교회를 1982년 5월31일자로 해체하고 누구도 동명의 교회이름을 사용치 못한다.

둘째 : 교회건축기금(약3만5천불)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조목사의 퇴직금으로 3개월분의 급료액을 지불한다.

이상과 같은 불법적인 처사를 결의한 다음날 임마누엘연합교회 해체"신문광고안을 준비하고 조목사 퇴직금을 본교회 거래은행에서 인출 시도하고 한인신용조합에 정기예금되어있는 임마누엘연합교회 자금을 부당 인출하려다 노회측의 사전 자금동결 조치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하자 ZONE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한 결과 미지불된 조목사 봉급 만이 인출승인을 얻어 지출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같은 노회측의 강력한 법적조치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연합교회 해체공고"라는 타이틀로 신문지상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생존권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실수 있읍니다. 감히 그리스도의 몸된 임마누엘 연합교회를 몇몇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해체 운운함은 신앙양심으로나 교회의 법통으로 볼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처사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남은 일은 그동안 체험한 교회의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아픈 상처를 잊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화해의 정신을 이어 받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명만이 남아 있읍니다.

교우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연합교회는 변함없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되며 진정 우리가 원하던 지난날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웠던 교회로 새출발 하기 위하여 새로운 목사님 청빙과 장래 교회운영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함께 토의하고자 합니다. 5월의 푸르러 가는 계절처럼 우리의 신앙도 푸르게 성장해야겠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다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를 바랍니다.

1982년 5월 일

한인임마누엘 연합교회

# 위험속의 童心

## 어린이날에 생각해보는… 「무관심·過保護」

# 어린이 安全憲章 제정 시급하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키워야한다. 지나치게무관심해도 안되지만 過保護도 금물이다. 원칙론으로 본다면 우리사회는 어린이키우기에서 낙제생。우리사회에서는 하루에도수십명씩 집안에서, 길에서, 학교에서, 예방이가능했던 각종사고를 당해다치고 불구가되고 생명을 잃고있지만 이에대처하는 구체적인 노력이라고는 찾아볼수가없다. 우선어른들 자신이 「안전」에대한인식이 돼있지않기때문에 「어린이안전」을 제대로 마련할수가없고 각가정이 어깨너머로 배운「과보호」를 히거나 될대로되라는식의방목을하고있는것. 따라서 우리어린이들은 코앞의「위험」도알아채지 못하는 방재(防災)개념부재의 「위험천만」한 어린이가 되고있다. 제60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어린이안전문제」가 더이상미룰수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경고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어린이 안전교육이 걸음마와 동시에 시작돼 유치원, 국민학교과정까지 계속돼야하고 구미각국처럼 「어린이 안전헌장」도 제정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 「위험脫出 교육」어려서부터

## 어린이 輪禍死만 하루 4명

◇우리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못해 각종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치안본부가 집계한 1980년도 교통사고통계를 보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전체사망자 5천6백8명의 23·3%인 1천3백5명으로 매일 4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당하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90%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대한 인식부족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화상역시 큰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 한일병원 외과 金顯哲씨가 지난5년간 이병원을 찾은 15세이하의 소아화상환자 2백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의 부주의나 어린이의 안전의식 결여에 의한 화상이 대부분。특히 만2세이하의 환자가 1백25명으로 57·1%를 차지했고 학령기전의 아동은 전체의 89·1%를 차지、미취학어린이들이 이같은 화상 원인에 거의 무방비인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화상의 경우 학령기전의 아동들은 가전제품의 전선을 입으로 물어뜯거나 콘세트에 젓가락등 쇠붙이를 찔러넣어 화상을 입었고 14∼15세의 경우에는 미숙한기술로 전기작업을하다 입는예가 많았다.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의 잦은 추락사고도 높이에대한 감각결여와 위험을 모르기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구경을 하던 어린이가 코끼리코에 머리를 맞은 사고도 안전시설미비와 어린이의 동물에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빈곤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이밖에도 인체공학을 무시한 국민학교의 계단、초칠을 한 미끄러운 복도, 못이튀어나온 책·걸상과 교실바닥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곳곳에 방치돼있다.

외국의경우 3세때부터 안전교육이 시작된다. 스웨덴에선 7세미만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땐 그부모가 책임을 지게돼있다.

미국이나 영국등에서는 3세부터 16세까지 6단계로나누어 생활주변의 모든안전문제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3∼6세때는 간단한도로교통법、가정용가스나 전기기구、성냥、라이터등을 다루는 법을 ▲6∼10세때는 도로주의사항、횡단방법、신호체계에서부터 낙뢰、화재、홍수발생시의 조치법 ▲10∼12세때는 자전거에대한 교육、야간운행、가정용전기기구류 사용법、가스、추락、맹렬한 놀이등에대한 위험을 ▲12∼13세엔 물리·화학·보건문제에 대한 안전교육、질식、감전、폭발、유류와포탄취급、대화재시의 대피및 예방을 가르친다. 또13∼14세때는 각종 자동차에 대한 안전교육을실시하고 14∼16세때엔 자동차안전운전과 산업안전、구급법은물론 사고의 사례교육까지실시하고있다.

**대책**

柳熙씨(한국가스안전공사연구위원)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현재의 잦은 어린이재난과 앞으로의 대형사고를예방할 가장 확실한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쿨버스는 선진국에서는 긴급수송차량과같은 우선권이 주어져있고 특별한 표시를 하게돼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규정이없다면서 스쿨버스가 급증하는마당에 관계규정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梨花女大 인간발달연구소장 李相琴교수(교육학)는 인권교육은 걸음마와 함께시작돼야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 지난해12월31일 국교1·2·3학년교과과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안전교육이시작됐으나 사고나 어린이들 모두 안전지도에 습관화되지않아 생활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있다。그나마 4·5·6학년과 유치원생들에겐 교육과정에도 명시돼있지않다.

梨大 金在恩교수(교육심리)는 안전교육은 늦어도 유치원부터 조직적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돼야 하며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관계당국도 마련 보다 안전한 상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단체에서도 소비자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方玟俊기자】

## 60돌 어린이날

### 전국서 푸른꿈펴는 다채로운 행사

5일은 60번째맞는 어린이날。이날 전국에서는 다채로운 어린이행사가 베풀어지며 서울에서는 상오10시 世宗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어린이·학부모·교사등 4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기념식을갖는다。

기념식에서는 서울 어린이상·청소년상 대상수상자 李昌善군(15·서울江西中3년)을 비롯 어린이상·청소년상수상자 45명、착한어린이상 수상자 3백20명、어린이 애호유공자 5명등 3백70명에대한 시상식이있고 축하공연도 갖는다。

한편 정부는 제60회어린이날을 맞아 한국사회사업유공자 29명에게 국민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및 보사부장관 표창을、선행어린이 25명에게 보사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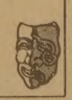
이날 국민훈장수상자 4명은 다음과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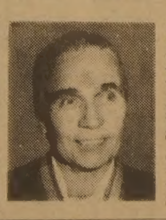
▲李프란시스카여사(60·국제SOS어린이마을 한국지부책임자)=동백장 ▲柳昌福씨(66·용신모자원원장)=목련장 ▲노기신신부(55·청주성심원원장·미국인)=목련장 ▲柳貞植씨(57·대전시소년직업보도소소장)=석류장

## 不遇兒돕는 李프란시스카 할머니

### 「쌀 한톨의 사랑」

### 「惡」으로 찢기운 童心에 사랑을…





李프란시스카할머니(60)가 한국의 불우아동을 위해 헌신해온 공로로 4일 정부가 주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고향이 어디냐』고묻는 질문에 거리낌없이 『한국』이라고 대답하는 이 할머니의 진짜고향은 남부오스트리아의 평화로운 농촌。아버지 어머니가 하루종일 밭일을 하는 들판에 저녁이면 성당의 만종이 울려퍼지곤하던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러나 국민학교 3학년때 이웃나라 이탈리아에서 「못쏠리니」라는 사나운 아저씨가 처들어와 전원의 牧歌는 끝장이 나고 할머니의 고향마을은 이탈리아의 북부영토로 편입되었다。

즉시 모국어사용이 금지되고 모국어교재대신 이탈리아말교재가 배부되었다。할머니의 어머니는 『앞으로 우리나라 말이 없어질는지 모르니 이책을 잘 간수하라』며 모국어로 씌어진 동화책 몇권을 구해주었고, 할머니는 이동화책을 지금까지 간직하고있다。할머니는 그때부터 「폭력」과 「惡」으로 찢기운 세상의 상처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어루만지는 생애를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할머니의 이 결심은 한국 땅에서 실현되었다。

할머니는 20년전에 大邱에서 SOS어린이마을을 창립했다。운영비를 조달하기위해 쌀한톨씩을 담은 비닐봉지 수백개를 만들어 유럽지역으로 보냈다。유럽SOS본부에서는 이 쌀한톨을 1달러씩받고 판돈을 모아 할머니에게 보내주었다。大邱SOS어린이마을은 이처럼 한톨의 쌀에의해 이뤄지는 사랑의 마음이다。

과거의 불우시설이 「수용」이라는 삶의 형식만을 제공해준데비해 SOS마을은 「생활과」 「인간관계」라는 삶의 내용까지를 충족시켜준다。할머니가 이 大邱SOS마을에서 길러낸 한국인손자·손녀는 2천명이 넘는다。지난3일 서울新月洞에서 개원한 서울SOS어린이마을에는 할머니가 大邱에서 길러낸 손녀 이광옥양(26)이 「어머니」로 부임해왔다。

오는 어버이날 할머니는 하루종일 손자·손녀들의 절을 받을예정인데 『멀 성공해도 좋으니 모습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기자에게 「傳言」을 부탁하는 것이었다。【金薰기자】

## 색맹·색약자에게도 운전면허 내준다

### 신호등만 식별하면

색맹이나 색약일경우에도 신호등의 3색만 식별이 가능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게됐다.

국무회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밖에 국내에서 2개월이상 체류한 在外국민의 경우 체류지 관할 市道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하고 신체장애자는 운전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대신 구술시험만으로 가능토록했다.

개정령은 또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를 발급할경우 법령시험을 생략、적성검사만 받도록했다. 개정령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대한 통고처분 대상의 구체적인범위를 정하고 운전사에대한 범칙금액을 50∼70%인상조정했다.

또 버스·택시등 사업용차량이 운수사업법을 어겼을경우 종래 운행정지처분을 받던것을 앞으로는 과징금을 물게했다.

# 銃器든 강도 세차례 전격犯行

## 2人組…훔친車타고 두藥局 털어

### 장난감銃 가능성…순찰車 추적중 놓쳐

### 江南서 35分새

플래스틱제 장난감 장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든 30대 2인조 강도가 3일 하오 8시5분부터 35분동안 서울江南區論峴洞과 大峙洞등 2곳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약국2곳에서 현금16만원을 잇따라 털어 달아났다.

범인들은 두번째약국을 털기직전 大峙洞에서 또다른 승용차를 탈취하려했다.

범인들은 이날밤 10시40분부터 20분간 경찰순찰차의추적을받자 하오11시께 서울鍾路區崇仁洞 서울시외전화국 옆골목에 승용차를 버리고달아났다.

江南경찰서 論峴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범행에 사용한 승용차에서 지문3개를 채취하고 담배꽁초등 유류품을 수거、국립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한편 차량절도전과자、총기류전과자등 2백50명을 상대로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4일 목격자들의진술에 따라 2인조가 번갈아가며 범행한것을 보고 몽타지를 작성、수배했다.

**1차범행**

이날 하오8시5분께 서울江南區論峴洞20의15 韓약국(주인 韓春子·41)에 27∼28세 가량의 청년 1명이 들어와 총구와총신10여㎝를 내놓은채 신문지로 싼 총기를 휘두르며 韓씨와 동화약품영업사원 李禎東씨(27)등 4명을 협박、韓씨가 카운터서랍속에 있던 현금6만원을 꺼내주자 약국앞에 세워둔 포니승용차를타고 달아났다.

**2차범행**

1차범행 28분후인 하오8시33분께 道谷洞416의10 宋昔煥씨(39·동진플라스틱대표)집 앞에 세워둔 宋씨의 서울4나777호 레코드로얄승용차(운전사·吳宇永·26)옆에 32∼33세가량의 범인이 베이지색포니승용차를 탄채 접근、운전사 吳씨에게 차창문을열라고 요구、吳씨가 차창을열어주자 총구를내보이며 자동차열쇠를 달라고 요구했다.

열쇠를 받은 범인은 『주인은 어디갔느냐』고 물은뒤 吳씨가 『제사집에 갔다』고 대답하자 『거짓말마라、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다 1백m뒤편에서 방범대원이 나타나자 道三洞쪽으로 달아났다.

**3차범행**

2차범행 7분후인 하오8시40분께 大峙洞52의2 은마아파트단지내 지영약국(주인 白滿子·37)에 1차범행때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범인이 나타나 주인白씨와 사촌동생 申玉姬양(25)등 2명에게 신문지에 싼 총기를 들이대고 위협、10여만원을 뺏어 약국앞에세워둔 승용차를 타고 良才洞쪽으로 달아났다.

**경찰추적및도주**

이날하오 10시40분께 城東기계공고앞길에서 城東경찰서 소속 183호 순찰차를 타고있던 孫良忠순경과 權潤浩상경등 3명이 범행차량인 서울4가3615호 베이지색 포니승용차를 발견、추적하기 시작했다.

權상경에의하면 승용차에는 2명이타고 있었는데 경찰의 추적을 눈치채고 달아나 崇仁洞 서울시외전화국옆골목으로 들어갔는데 孫순경등이 따라들어가니 승용차는 버려져있었고 범인들은 달아난후였다.

**범행승용차**

범행에 사용된 서울4가3615호포니승용차는 이날 상오4시께 서울九老區加里峰洞133의6 金相潤씨(36·中央大교육대학원생) 가집앞에 세워두었다가 도난당한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수사본부(본부장 李康年·江南경찰서장)는 1·2·3차 범행장소에 각각 1명의 범인이 나타났으나 순찰차의 추격을 받을때 운전사외에 조수석에 1명이 더 타고 있는것이 목격됐고 1·3차와 2차범행때의 범인인상착의가 서로다른점등을 들어 일당이 2인조인것으로 보고있다.

**범행흉기**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총구가 50원짜리만한 크기였고 ▲쇠붙이 특유의 윤기가없으며 ▲총신이 20㎝에 가늠쇠가 없었으며 ▲총구위에 플래스틱제품에 있는 틀자국이 있고 ▲범인이 총열과 몸통을 신문지로 덮었다는 점으로미뤄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플래스틱제 장난감 권총인것으로 보고있다.

## 障碍者경기장竣工 李順子여사 참석

◇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가 正立會館 장애자 종합경기장준공식에서 장애자들을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4일하오 서울城東區九宜洞16의3 正立會館(관장 黃年代)안에 새로건립된 장애자전용 종합경기장 준공식에 참석, 테이프를 끊은뒤 장애자축구경기를 관람했다.

李여사는 이날 격려사를통해 『삶의 가치는 얼마나 유복하고 좋은 환경속에 사느냐에 달려있는것이아니라 각자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는가에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몸이 불편한 청소년여러분은 자칫 좌절에 몰려서기 쉬운 소극적자세를 떨쳐버리고 체육활동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가치관과 진취적인 사회참여의욕을 북돋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李여사는 이어 청와대로돌아와 柳美娜양(서울수유국교5년)등 전국모범청소년 26명과 인솔교사 26명을위해 다과회를 베풀었다.

이자리에는 李奎浩문교부장관과 柳炯陳대한教聯회장이 배석했다.

正立회관은 지체부자유아들의 교육기관으로 이번에 마련한 종합경기장은 총5백38평에 휠체어가 드나들수있는 스탠드와 지체부자유아들이 즐길수있는 축구·배구경기장및 실내사격장、洋弓장등을 갖추고있다.

## 프로바둑에 첫 9段 탄생

### 曺薰鉉名人… 7大棋戰중 5冠王

한국프로바둑사상 첫 9단이 탄생했다。국내최강자인 曺薰鉉8단(29)은 4일 한국기원서 열린 제55회 甲조승단대회 제1국에서 金在九7단에게 집흑으로 1백65수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入神으로의 승단이 확정됐다。

그는 9살때 한국기원초단으로 입단、최연소 입단기록을 세웠다。이기록은 趙治勳名人의 일본기원 최연소입단기록보다 2년이나 빠른것으로 아직도 깨지지 않고있다。

입단한 그해 일본으로 건너가 바둑수련을 쌓은 曺기사는 1972년 군에 입대하기위해 일본기원 5단으로 귀국、한국기원 5단을 인정받았다。

1980년 국내의 모든기전을 석권하는 통일천하의대위업을 이룩했다。曺名人은 현재 국내 7대신문기전중에서 5개의 타이틀을 지니고 있으며 두개의 기전에서도 도전권을 쟁취、다시한번 全冠王을 노리고 있다.

## 金月棲주지 佛國寺분규 勝訴

【慶州】법정시비로 번진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慶州佛國寺에 대한재판부의 본안소송판결이 불국사측의 승소로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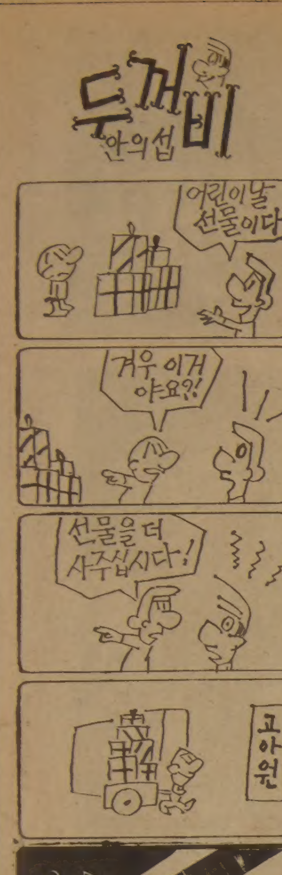
大邱지법 慶州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石容鎬부장판사)는 4일상오10시 佛國寺분규를 둘러싼 金月棲주지의 총무원을 상대로한 「11교구관할권 폐지및지정효력 정지등 가처분신청」 본안소송이 이유있다고 판결했다。【韶】

## 啓明大 申一熙총장 辭表제출… 수리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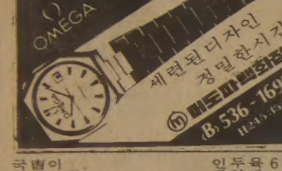
【大邱】啓明大 관선이사회(이사장 金容大)는 4일 申一熙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날상오 11시부터 하오4시까지대구시교위상황실에서 열린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이사회는또 전재단 이사장이며 현관선이사인하위더·마페이사의사표도 수리했다。

啓明大는 동산병원과의 통합문제를 둘러싸고 재단분규를 빚어오다가 지난해10월13일 이사진이 총사퇴함으로써 문교부가개입、관선이사진을 구성했었다。【韶】








# 히팅

"oil Furnace를 Gas Furnace로 교환해 드립니다"

지난 겨울동안 oil을 사용하시는 가구주는 히팅값이 천연가스에 비해 약 30% 정도 더 소비가 됐읍니다.

다음 겨울에는 약 40% 정도로 연료비가 더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는 oil 난방비를 가스로 바꾸는 경우, 그 경비의 약 절반을 보조해 주고 있읍니다.

연료비 절약을 위해 금년에는 꼭 가스로 난방을 바꾸십시요.

HOUSING CONSULTANTS LTD

1177 FINCH AVE. W. SUITE 21

☎ : 663—5155(B)
535—2804(R) 김 상 표

# 무역세미나

○최승락(외환은행장) : 캐나다금융 경제의 현황
○신동오(대사관승무관) : 한국경제의 전망
○김병주(Kimball 사장) : 무역의기초

금번 무역인협회에서는 위의 3분을 모시고 무역세미나를 개최하고저 하오니 무역에 관심있으신 교포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시 일 : 1982년5월13(목) 저녁6시
장 소 : Board of Trade 3층 (1 First Canadian Place Bank of Montreal)
회 비 : $15.00(저녁식사포함)
연락처 : 535—3352

주최 : 무역인협회
후원 : 실업인협회

제3회
한국일보사배명인전
도전자결정바둑대회

1. 대국일시 : 5월22부터 6월13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대국함.
2. 대국장소 : 한국기원
3. 신청마감 : 5월30일까지
4. 대국방법 : FULL LEAGUE전
5. 신 청 료 : $20
6. 시 상 : 1·2·3등 TROPHY증정
7. 결승대국 : 6월19일 오후2시
8. 시 상 : 6월19일 오후6시
9. 기 타 : 6월13일까지 대국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기권한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승율이 같을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을 적용함.
10. 제2회 우승자 : 이세주 아마7단

1982년 5월 5일

한 국 기 원

高校野球

# 釜山·慶北高 오늘争覇

## 文炳權호투、12安打로 全州제압 慶北

## 좌완金宗奭、信一高타석 잠재워 釜山

慶北高의 전승우가냐, 釜山高의 명예회복이냐。 지난해 4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던 慶北高와 78년우승팀 釜山高가 제16회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 패권을 놓고 5일 결승서 대결한다。

◇4—1로 뒤지고있던 信一高의 7회초 반격에서 1死후 포볼로 출루한 6번 金恒基가 보내기번트로 2進, 기습적인 3루스틸에 성공했으며 이를견제하던 釜山포수 田龍雨의 악송구로 홈까지 살아들어왔다。

釜山高의 좌완에이스 金宗奭(17·178㎝·72㎏)。

동문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있는 그는 과연 78~79년에 楊相政이 이룩했던 5개 전국대회석권의 영광을 재현할것인가。 금년 고교야구 최고의 왼손투수로 주목받고 있는 金宗奭은 4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1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8일째 준결승전서 信一高에 초반 선제 솔로 호머를 맞았으나 위력적인 인코스 직구와 슈트로 信一高 33타자를 산발5안타·3희타·1포볼·11삼진으로 처리, 釜山高에 4-2의 승리를 안겨 주었다。

2회초 홈런으로 실점했던 金宗奭은 2회말1死후 역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빛을 잔았으며, 5번 尹熙政의 5회말 결승타로 釜山高의 승리를 굳혔다。 金宗奭은 이번 대회 4게임에서 완투승했으며 37회동안 26안타、9四死球、9희타、11실점(7자책점)으로 방어율 1·70。 삼진27개를 기록하고있다。

이날慶北高는 1회초선두 張文榮의 우월3루타로 포문을 열어 2번 金容喜의 우전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리며 기선을 제압, 全州高를 5-2로 물리쳤다。

2회초 1死후 5번 金輪中의 좌월 솔로호머로 잡은 信一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信一투수 金에게 홈런을 맞은 釜山 에이스 金宗奭은 곧 2회말 반격에서 앙갚음이라도 하듯 좌전2타점적시타를 날려 2-1로 리드를 빼앗았다。 釜山은 金宗奭의 역투로 11명의 信一타자를 삼진으로 KO시켰다。 행운의 5회말 1死후 잇단 포볼과 데드볼로 승기를 포착, 2死후 5번尹熙政의 우전적승타와 이타구를 놓친 信一 우익수 張光一의 실책으로 2점을 추가하여 승리를 굳혔다。 信一은 7회초1死후 포볼로 나간 6번 金恒基가 후속 보내기 번트와 결사적인 3루 스틸, 釜山포수 田龍雨의 견제악송구로 홈인、2점차로 추격하는데 그쳤다。

◇제8일(준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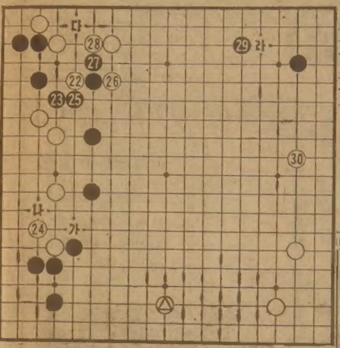
| | | | | |
|---|---|---|---|---|
| 신일고 | 010 | 000 | 100 | 2 |
| 부산고 | 020 | 020 | 00× | 4 |

▲홈런=金輪中(2회·신일)

| | | | | |
|---|---|---|---|---|
| 경북고 | 100 | 100 | 030 | 5 |
| 전주고 | 100 | 000 | 010 | 2 |

##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 第3譜 22~30 (각5시간 덤5집반)



# 亞洲여자籠球 3連覇 눈앞에

# 한국、오늘 日과 최종 한판

## 싱가포르大破 4連勝 152-35

## 中共도 日本에 68-56으로 승리

【東京=李基洪특파원】 한국여자농구팀은 中共을 꺾은 여세를몰아싱가포르를152-35로 대파、5일 하오2시30분 日本과의 마지막 결전을 남겨놓고 있다。

4일하오 이곳 요요기(代代木)체육관서속행된제9회 아시아여자 농구선수권대회(ABC)결승리그4일째경기서 한국은 약체 싱가포르를 맞아 주전 전원을 고루 기용하며 여유있는 경기를 펼친끝에 결승리그서 4전 전승을 기록했다。 선장과 개인기가앞선 한국은 日本과의대전서 낙승이예상되고있다。

결승리그 3차전에서 中共은 日本을 68-56으로 꺾었다。 中共과 日本은 나란히3승1패로 5일 한국이 일본에 승리할경우 中共은 준우승을 차지한다。 장신세의 中共은 적극 對人방어를펴 日本을맞아 경기초반 시소를벌였으나 리바운드우세와 修麗娟의골밑활약(22점) 宋曉波(16점)의 중거리슛에 힘입어 후반 내내 리바운드를 지켰다。 日本에선 오오따니、아베가 6점씩을 올렸다。

◇결승리그 제4일

한국 152(81-20 71-15)35 싱가포르 (4승) (4패)

중공 68(36-28 32-28)56 일본 (3승1패) (3승1패)

마카오 70(26-30 44-21)51 말레이지아 (1승3패) (4패)

◇감격의 순간。 3일 中共을 65~64로 물리친 한국선수들이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있다다。 왼쪽으로부터 金福順 金和順 申東坡감독 朴贊淑。 【東京李東虎특파원】

## NHK컵배구 참가 代表팀11·13일出國

올해 처음개최되는 日本NHK컵쟁탈 韓·日·쿠바 3개국친선배구대회에 출전하는 여자대표는 11일에、남자대표는 13일에 각각 출국한다。

여자대표팀은 金明洙협회부회장을 단장으로 임원5、선수13명으로 구성되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오사까에서 열리는 韓·日·쿠바 3개국 친선여자정상전에 출전한다。

한편 任相奎실업부회장이 이끄는 남자대표단(임원5·선수15)은 21일부터 23일까지 요꼬하마에서 펼쳐지는 韓·日·쿠바 3개국친선 남자대회에 참가한다。

# 樂觀못할 日本팀

## 홈코트 잇점살려 覇權노려

## 戰力 한국보다 「한수」아래

## 득점력보다 수비가 더强해

### 평균신장 百73㎝、선수층평등

日本은 수비가 좋다。 사령탑 中東坡 감독은 「日本은 공격력보다 수비가 강하다。 적극 對人방어로 우리의 공격예포를 차단하려 한것이 주효했다」고 말한다。

日本은 4일 中共과의 대전서 예상밖으로 잘싸웠다。 전반전에 5차례의 동점과 3번의 역전을 거듭하는 시소였다。 결코 한국에 뒤지지 않는 파이팅이었다。 한국과 中共에 눌려 3위권에 맴돌고있는 日本의 강점은 선수층이 고르다는 것。 한국이나 中共처럼 슈퍼·스타를 갖지못했고 고도의 묘기를펼치지 못하지만 무리하지않고 공식대로 착실하게 경기를운영하는것이다。 홈코트 이점을 살려 12년만의 패권탈환을 노리는 日本의 베스트5는 오오따니(1m81)스즈끼(1m70)모리시따(1m70)이또(1m72)구마가이(1m78)。

한국은 75년 콜롬비아세계선수권대회에서 日本에 패한뒤 6년동안 日本에 한번도 진적이 없다。 당시 朴贊淑은 여고1년생이었다。 멤버나 對中共전결과를 토대로볼때 한국이 우세하다고 보아야하겠지만 낙관은 금물。 관중석의 환호까지도 감안해야한다。

『적극대인방어로 수비를 굳히면서 주무기인 속공을 노리겠다』는게 申감독의 작전。 우세한 신장을 이용하여 리바운드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면 경기는 쉽게 풀릴것 같다。 다만 金和順등 주전들의 컨디션이 나쁘게 염려된다。 【李東虎특파원】

## 南北對決 예상

### 뮌헨 세계選手權

【뮌헨=聯合】 제3회 세계아마 복싱선수권대회가 南北韓을 포함한 46개국 2백70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5일 새벽2시(이하한국시간) 이곳 올림픽·홀에서 개막、열전12일에 돌입했다。

7명의 선수가 출전한 한국은 3일 실시된 계체량을 모두 통과、대진추첨결과 라이트·플라이급의 許永模와 라이트·웰터급의 金東吉은 부전승으로 2회전에 진출했다。

웰터급의 鄭鎔範은 5일 새벽5시에、라이트급의 李鉉佳는 상오11시에 각각 첫경기를 갖는다。

한편 북한은 라이트·플라이급、밴텀급、라이트·웰터급등 4체급에 출전、이들 체급에서 남북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 싱가포르 國際축구 83년부터 거행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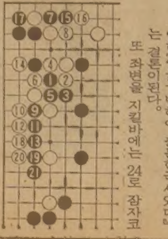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오는10월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국제축구대회를 1년간연기、83년부터 거행키로 했다。

## 주간女性

### 是非부른 白24

白(7段) 河燦錫 〈3勝2敗〉

黑(6段) 徐能旭 〈2勝3敗〉



河7단은 형세가 유리할때와 나쁠때로 「멋진」 수를 두었을때는 즐거워 어쩔줄 모를만큼 표정이 환해진다。 이바둑에서도 黑이 두어야할 △표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 희색이 만면했는데 그러나 白22、黑23때 기분에 취우쳐 좌변을 24로 지킨수가 그만好事多魔。 黑25로막은점을 보더니 저도모르게 『아차、이게뭐람』하고 허를찼다。 뿐아니라 그후얼마동안 24를 가리키며 再嘆三嘆。

본인의 감상과 다른기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24는 「가」로 호구쳤하는 수가 기분이좋아서 슬쩍 틀어본수단이지만 여기서는 22의뜻을 살려 참고도처럼 두어야했다。 즉 黑1(실전의23)에 대해서는 白2、4가 강수。 이하黑9가 역시강수이긴하나 白은10이하20으로 변하여 충분한국세였다』는 결론이된다。

또 좌변을 지킬바에는 24로 잠자코 「나」에 가일수해야되는것을 오히려 장차、黑에게 수단을 당할여지만 남겼다는 것이다。

河7단은 예서부터 점마다 4분정도를 소비하며 열심히두어갔다。 黑25정수에 대한 白26은 黑「다」를 예방하는 苦心의 수단。 이때 徐6단은 우하귀쪽 白의 目字굳힘을 잠깐 응시하더니 똑같이 우상귀를 黑29로 넓게 굳혔다。

담장은 별일이 없지만 29는 역시 「라」의 곳을 目字굳힘할 자리인듯。 白30을 허용한만큼 귀가허술해지고 따라서 白이 어딘지모르게 유망하게 보인다。 【一凡】

## 流星의 賦 <375>

李炳注 作 李友範 畫

### 고독한 英雄 ⑩

심대에게 홍계남이 보낸 반박서는 충주 단월의 전투를 위시해서 진천 죽산 대라 광주 과천에 이르기까지의 전과(戰果)를 열거한 후에 다음과 같이 계속 되어 있었다。

『왜인에게 아부하여 못할 짓이 없는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놈들의 집을 불사른 행동이 약탈 행위로 되는 것인가。 적의 창고에서 화약을 탈취한 일인가。 그것을 아진(我陣)으로 옮기기 위해 인근 주민들의 힘을 빌린 것이 약탈을 획책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무릇 구원지사가 있을 때 전투의 경위를 소상하게 알고 할 일이어늘 어찌 경솔하게 사정도 살피지 않고 그런 명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막다기도 일어서서 적을 물리쳐야할 이 판국에 관군이 어떻고 의병이 어떻고 사병(私兵)이 어떻고할 겨를이 있겠읍니까。 물론 나도 의병을 가장하여 화적질을 감행하는 무리가 있다고 들었지만 당당히 적병과 맞서 불패(不敗)의 사기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해 그러한 비난의 말은 도저히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병을 이끌어 관군에 합류하라는 분부이지만 그 뜻이 나변에 있던지 나는 이에 응할 수 없읍니다。 그 뜻은 관군으로서 아직 상대에 이겨본 일이 없고, 저의 오합지졸이나 다를바 없는데 그런 곳에 연전연승한 우리 군사를 섞어 보았자 얻을 것은 적고 잃을 것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충성과 의리와 정으로 뭉친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만일 우리가 헤어지거나 다른 군대에 편입되거나 하면 여태껏 지니고 있은 용맹과 사기를 잃을 염려마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의 명령을 거역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이미 행재소에 치계를 올려 상의 지시를 받고자한 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원 행재소에서 분부가 올 것으로 믿고 있으니 그 분부를 기다려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연전연승한 우리 부하들의 노고를 칭송하진 못할망정 모두 비방하는 언사는 삼가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심공께서 꼭 고집을 버리시지 않는다면 감군(監軍)을 청하여 우리 군대의 동태를 살피게 하여 시비와 흑백을 가린 연후에 처분을 짓도록 하십시오…』

홍계남은 이러한 문면을 사자로 하여금 심대에게 전하도록 했다。

그래도 조인신은 『우리가 이대로 있다간 엉뚱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군법을 다스려질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하자 홍계남도 그럴 경우를 상상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지만 『심대감사가 아무리 어리석기로서니 내가 보낸 글을 보면 깨우치는데가 있을 것이다。 왜적을 당하기에도 급급한데 어찌 아군끼리 싸움 차비를 하겠는가。 우리의 입장은 정말 고달프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필귀정할 것이니 천운이 무심치 않음만을 기다릴수 밖에 없다』

하고 수원성 공략의 계획을 의논하자며 화제를 바꾸었다。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03>

朴婉緖 作 金光培 畫

### 明暗 ㊲

인재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목이가 생전 처음 가져보는 거짓없이 참된 거였고, 행복을 찾아야한다는 오랜 집념 대신 처음으로 그녀 마음을 속속들이 사로잡을수 있었던 거였다。

만약 그녀가 인재를 좋아하는 것만큼의 인재의 마음을 얻을수만 있다면 가족같은거 생전 못찾아도 그만이었다。 인재의 애인이나 아내가 될수만있다면 대갓집의 귀염받는 딸 노릇 못해봐도 그만이었다。

오목이가 가족을 찾으려는 집념에는 가족이 그들입부터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의심이 포함돼 있었다。 고아원 아이치고 자기가 고아된 까닭이 미아(迷兒)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일부러 버려져서 고아가 됐다는걸 알고있기때문에 가족을그리워하는 마음대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목이는 달랐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잔뼈가 굵었으면서도 스스로를 늘 보통 고아들과 구별하려 들었다。 전생의 기억인지 이승의 기억인지 또는 어릴적부터의 공상인지 그것조차 모호한 두개의 영상을 그녀는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두개의 영상은 전혀 상반되는 거였다。 하나는 마치 추상화처럼 건져낼 만한 구체적인 형태는 하나도 없는 거였다。 하나는 따뜻하고 화려한 색채가 아니 느낌의 거였고 다른 하나는 까닭모를 아비규환과 혼돈과 섬뜩한 고립감이었다。 울트미스라고를만한이나이까지 그녀는 때때로 그런 느낌을 악몽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곤했다。

그녀는 자신의기억이 거슬러올라갈수있는 맨 마지막 한계에 있는 이 두가지 영상으로 자신의 출생을 아름답게 꾸미길 좋아했다。 나는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의 사랑받는 딸이었다가 전쟁의 와중에서 가족과 헤어지게 됐다。 나는 결코 딴 고아들처럼 부모가 원치않는 아이, 부모의 손으로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아로부터 구원하려 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스스로 꾸며낸 이런 출생의 설화를 진짜으로 믿을수만 있어도 그녀의 가족찾기 집념이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을 것이다。 혹시 자기도 보통 고아들처럼 버려진 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안했다면 거짓말이었다。

그런 의혹은 어쩔수가 없었고, 어쩔수없는 의혹을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찾기의 집념을 버리지못했다。 그만큼 자신의 생명이 시작부터 구박받고 푸대접에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나 인재를 좋아하고부터는 그런건 아무래도 좋았다。 부모가 태어남을 축복했든 구박했든 간에 상관없이 이세상은 태어날만한 고장이었고 인생은 살아볼만한 것이었고, 청춘은 아름답고 기쁨에 충만해있었다。

부모가 설사 태어남을 막살하려한생명이었을지라도 태어나길 참 잘했다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찬탄하지않을 수 없었다。 부모는 낳아줬을뿐 소유할수는 없었다。 그녀는 생각나지도 않는 부모에게도 자신을 깊게 속하려들었던 자신을 풀어 심심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인재를 알고부터 오목이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궂은일도 나이었고, 사람 사는모습은 척져졌고, 눈에 띄는사물은 온통 아름다왔다。 설사 그녀의 부모가 낳자마자 그녀를 버렸대도 부모에게 감사할수있을것 같았다。 태어났다는것만으로 크나큰 은총이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신기한 기쁨을 맛볼수가 있었을까。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巨龜莊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흥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영업시간〉 월·화·수: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 英·아르헨戰 擴大一路

## 아르헨 巡洋艦大破 魚雷맞아
## 英 포클랜드 上陸說 特攻隊등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3日雅=綜合】 포클랜드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아르헨티나의 무력대결은 영국核잠수함 헌터킬러號가 3일 새벽4시(한국시간) 포클랜드주변2백마일 전쟁水域밖 로스에스타도스島 동남쪽해상에 있던 아르헨티나순양함 제너럴벨그라노호(1만4천톤급)를 어뢰로 공격, 대파했다고 영국측이 발표함으로써 포트스탠리비행장 공습에이어 쌍방이 공중전과 해전을 치르는등 계속 확대되고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두번째로 큰 벨그라노號는 서캐트對空미사일을 70基나 적재, 지금까지 함재기의 지원이 절실한 영국기동함대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측도 벨그라노號가 영국핵잠수함의 어뢰공격을 받았음을 시인했으나 이배가 침몰되었는지 또 인명피해가 얼마인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앞서 포트스탠리 공항폭격에 아르헨티나 공군기1백여대가 대거 보복출격함에 따라 남대서양상에 불꽃튀는 공중전을 벌인바있다. 그戰果는 쌍방의 발표가 엇갈려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아르헨티나측은 공중전에서 해리어기6대와 헬기2대를 격추시켰으며 항공모함 허미즈號와 프리키트함4척에 막대한 피해를주고 해리어기 5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해군대변인과 허미즈號에동승한 기자들은 아르헨티나측의 허미즈號에대한 공격주장을 사실이아니라고부인했다.

영국측은 아르헨티나의 대거기2대와 캔버라폭격기 1대가격추되었으며 또다른 미라지1대를 파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서로승리를 주장하는 쌍방의발표가 엇갈리고있다.

전쟁이 본격화된 지금 모든관심은 영국특공대가 포클랜드에 상륙할것인가에 집중되고있는데 미확인 보도들은 이미 영국특공대와 특수공군(SAS)의 선발대가 포클랜드에 상륙했다고 보도하고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해병대들이 지난1일 헬리콥터에탑승, 포클랜드에 세차례나 착륙을 시도했다가 아르헨티나 수비대에의해 모두 격퇴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誌는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본토의 공군기지를 폭격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아르헨 發進기지 아르헨티나軍이 1일 본토 코모도로·리바다비아부근의 발진기지에서 포클랜드군도로 수송할 포탄을 적재하고있다. 【코모도로·리바다비아(아르헨티나)1日AP綜=聯】

◇1978년도 제인군함연감에 실린 아르헨티나 순양함 제너럴벨그라노의 모습. 【뉴욕2日AP綜=聯】

### 英·아르헨, 7개항 美平和案 정식거부

아르헨티나정부는 헤이그美국무장관이 벨라운데 페루대통령을 통해 전달한 모두 7개항으로된 새로운 휴전안을 거부한다고 공식발표했으며 프랜시스·핌외상도 영국이 페루가 전달한 새평화안을 수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英 헬機, 어제낮 아르헨 巡察船 격침

【런던3日AP綜合=聯】 영국군 헬機들은 3일낮 정오(한국시간) 포클랜드주변 영국해공 봉쇄전쟁 구역내에서 아르헨티나 순찰선 1척을 침몰시키고 다른1척을 파손시켰다고 영국 국방성이 발표했다.

### 蘇衛星、情報제공

【뉴욕3日AP綜合=聯】 소련은 포클랜드 위기가 발발한 이래 남대서양 상공에 6~8개의 첩보위성을 발사했으며 아르헨티나에 이 위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했을지도 모른다고 뉴욕·타임즈紙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첫번째 위성은 아르헨티나군이 포클랜드를 침공하기 3일전인 3월31일 발사됐다고 미군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 한국여자농구 또 中共꺾었다
### ABC 事實上결승
### 劇的역전…65대64로

【東京3日=李基洪특파원】 한국여자농구가 또다시 中共을 꺾었다. 한국여자농구 대표팀은 3일하오 東京요요기(代代木) 체육관서 거행된 제9회 아시아여자농구 선수권대회(ABC) 결승 리그 이틀째 장신 中共과의 대전서 65—64로 극적 승리, 결승리그서 3전전승을 거두어 우승고지에 한발 다가섰다.

이번 대회의 사실상 결승전인 中共과의 대전서 한국은 전반전서 中共의 장신에 눌린데다 중거리슛이 불발, 리드를 당했으나 朴鎭淑의 중거리슛이 터져 점차를 좁힌후 후반 치열한 접전끝에 경기종료 15초를 남기고 朴鎭淑의 결정타로 65—64로 역전,신승했다.

이로써 한국은 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서 中共과 처음 격돌한후 이번까지 7번대결, 한국이 6승1패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있다.

한국은 5일 최종일경기서 日本을꺾으면 이대회3連覇를 이루게된다.

### 이라크 바그다드市長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3일 상오 청와대에서 신임 孫宗鎬 산림청장, 鄭埰鎭 慶北지사, 李相熙 大邱직할시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盧泰愚 내무, 金容烋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의 싸미르·모하메드·압둘와합시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金聖培 서울시장이 배석했다.

## 10월 美蘇頂上회담
### 레이건、브提議수락
### 장소는 奧나 아일랜드서

【워싱턴3日綜合=聯】 레이건美 대통령은 오는10월 美蘇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의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워싱턴·포스트紙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정부소식통을 인용, 70년대의 현美蘇수뇌간에 첫번째 만남이 될 이번 정상회담의 장소는 오스트리아나 아일랜드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즈네프는 오는6월 유엔군축회의에서 만나자는 레이건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제3국인 스위스나 핀란드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수정제의했었다.

### 李範錫 비서실장 中南美4국 巡訪

李範錫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特使자격으로 약3주동안 코스타리카등 中南美4개국을 순방키위해 5일 출국한다고 외무부가 3일 발표했다.

李실장은 8일 루이스·알베르토·몽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뒤 中南美3개국을 차례로 방문, 방문국지도자들과 우호관계증진및 경제협력 확대방안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 宜寧사건 배상금 최고2천2백만원

【宜寧】 부산·경남지구국가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金有厚부산지검차장검사)는 3일 宜寧총기난동사건의 사망자55명에 대한 배상금을 최저2백63만원, 최고2천2백60만원(합계6억1천9백여만원)으로 결정, 농협宮柳面단위조합의 예금통장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 오늘 軍事停戰委

군사정전위원회 제4백12차본회의가 4일상오 공산측요청으로 板門店에서 열린다고 3일 유엔군사령부가 발표했다.

### 社會漫評

즐거운것도 있구나—

## 임시國會 소집 「與野공동」절충
### 野圈, 단독要求 留保

民正黨과 民韓·국민등 주요정당은 3일 野黨이단독으로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려던 당초방침을 일단留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與野공동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절충하고 있다.

與野는 일요일인 지난2일 각黨총무들끼리 접촉을 통해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번 與野간에 합의했던 5월말~6월초의 임시국회를 앞당겨 5월중순께로 召集하는 방안도 검토된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의제는 각당에서 자체조정한뒤 절충을 벌이기로했다.

이에따라 民正黨은 이날하오4시와 6시 黨職者회의와 院內對策委를 잇달아열고 이문제를 협의, 李鍾贊총무에게 국회소집 여부문제를 일임키로했다.

한편 民韓黨과 국민당및 議政同友會는 宜寧사건을 다루기위해 野圈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했던 당초방침을 修正, 與野가 합의하여 임시국회소집을 공동추진키로했다고 양당총무가 밝혔다.

林총무는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野圈단독소집요구는 일단 留保키로했다고말했고 李국민총무는 內務委이외의 관계常委활동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임시국회를 앞당겨 열게될경우 與黨은 당면문제만을 중심으로 短期국회를 고려할것으로 보이는반면 野圈은 宜寧사건을 비롯 최근의 종교계움직임과 經濟·사회문제등 國政전반에관해 2주일정도의 會期로 열어야된다고 주장하고있다.

### 山林廳長 孫宗鎬씨 慶北知事 鄭埰鎭씨 大邱市長 李相熙씨

정부는 3일 산림청장에 孫宗鎬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승진발령하고 慶北지사에 鄭埰鎭大邱직할시장, 大邱직할시장에 李相熙산림청장을 각각 轉補발령했다.

◇孫산림청장略歷 ▲全北출신·48세▲全北大농업경제과卒▲산림청林木육종연구소서무과장▲농수산부 유통경제국장▲국립種畜場長▲농수산부기획관리실장

◇鄭慶北지사 ▲慶北출신·50세▲慶北師大사회과卒▲내무부지방재정·행정담당관▲忠北·全南부지사▲大邱시장▲지방행정연수원장▲내무부민방위본부장·지방행정차관보▲大邱직할시장

◇李大邱직할시장 ▲慶北漆谷출신·50세▲高大법학과卒▲晋州시장▲내무부지방재정담당관▲全北·慶南부지사▲내무부지방행정국장·기획관리실장▲산림청장 ★얼굴2面

◇孫宗鎬청장

◇鄭埰鎭지사

◇李相熙시장

조 규 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 地平線

7명의 여류비행사를 포함한 42명의 일본 비행사가 소형비행기 8대를 몰고 우리나라에 왔다. 한국측 초청을 받아 상호친선방문차 온 이들가운데는 65세인 일본최초의 여성비행사 노조끼·야에 여사도 끼어있다. ▼한일 항공 발달사를 돌이켜보면 감회깊은 얘기들이 많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비행사인 平壤출신의 權基玉여사가 중국에서 抗日獨立투쟁을 하기위해 雲南航空學校에 들어간것이 1922년이었으니 지금부터 60년전의 일이다. 일본보다 10여년 여류비행사가 먼저 탄생한것을 금방 알수있다. 여류비행사2호는 淑明출신의 李貞喜여사, 국내최초의 남자비행사安昌男을 비롯한 한국청년비행사들의 빈번한 모국방문에 자극받아 일본으로건너가, 조종사공부를 마친후 1928년 3월27일 大邱비행장에서 冒險비행대회에 참가, 세상을 놀라게했다. ▼이처럼 淑女를 낳고 싶은 여성이 많았던탓인지 한국여성비행사들의 활동은 이미 활발하다. 金環桐여사는 널리 알려져있고 몇해전엔 金傳姬、咸光蘭 두 여류비행사의 멋진화보를 잡지에서 본일도 있다. 젊은 오린지색 파일러트복을 입은 여인들을 연상만해도 눈부시다. ▼우리나라의 民間航空은 지금 5大洲를 누비고 있지만 그초창기는 일정치하에서 싸울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고층아파트가 즐비한 汝矣島는 그당시엔 京畿道高陽郡 龍江面으로 簡易비행장이 있던 자리다. 曲藝비행대회가 해마다 열렸고 安昌男을 비롯한 母國訪問飛行大會때마다 겨레의 가슴이 뭉클했던 것이다. ▼하나 近代科學의 총아로 등장한 비행기는 일본에서 배웠지만 우리겨레의 비행기연구는 알고보면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다. 朝鮮正祖(1776~1800)때의 學者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엔 壬辰倭亂당시 飛車를 우리측에서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嶺南의 어느城이 倭軍에게 包圍되었을때 城中에서 날으는 수레=飛車를 만들어 城안으로 날게하여 城主를태워 30里밖으로 구출했다는 것이다. 따오기처럼 생긴 이 飛車에는 4명을 태울수 있었고 배를 두드리면 바람이 일어서 空中에 떠올라 능히 百丈을 날수 있었다고한다. 우리조상들이 이용한 飛車는 지금의 글라이더같은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올해안에 우리국내서도 비행기를 만들수있다고한다. 그만큼 항공기제작기술이 발달돼가고있다. 일본비행사들이 7년만에 대거 우리나라를 친선방문한 참에 부질없는 감상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 공 고

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는 본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양로원(Nursing home)에 산재하여 계신 연로하신 어른들을 한곳으로 모시기 위한 일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언어의 장벽, 환경의 이질감, 음식의 차이로 적절히 받으셔야할 대우도 못받고 고생하시는 여러분을 한 양로원으로 모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던중 온타리오주정부 사회부와 보건부의 호의적인 협조에 힘입어 아래와 같이 1차적인 기초조사를 하고져 하오니 저희들 취지에 찬동하시고 양로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가정에서는 아래사항을 하기주소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인성명 : 생년월일 : 성 별 :
양로원명및 주소 :
입원일자 :
가족성명및 주소 :
전 화 :
연락주실곳 : Korean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C/O J. H. CHUN 6042 PADDLE RD. MISS. ONT.
(416) 826—6664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천 중 환 • 이사장 김 명 규



## 마야 미용실

### 개업인사 및 특별봉사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가 불로아에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특별봉사로 성심 성의껏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꼭 찾아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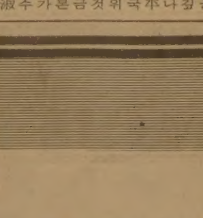
개업일 : 1982년5월1일
세일기간 : 5월초~6월말까지(2개월간)

HAIR 부문
*캇트, 파마및 스타일 $25 & up
*캇트 및 스타일 $9
*샴푸 및 스타일 $8
*머리염색 $12 & up

MAKE UP 부문
*신부화장
*파티화장
*스테이지화장
*심는 속눈섭 전문
*신부드레스 대여

※머리가 상하신분 또는 헤어스타일에 항상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은 한번나와 주세요.

631 BLOOR ST. W.
( 한국관 맞은편, 서울여행사2층)
588—1480(B) 243—8026(R)



헤어스타일이스트
김 영 주

화장스페샬이스트
클라라 홍

# 戰爭도 잊은듯 市民들 特報속에 祝祭즐겨

## 英·아르헨表情

### 런던 꽃축제·세계卓球등 예정대로…대처首相 인기 급상승

### 부에노스아이레스「5월廣場」에 人波、대통령연설 듣고 거리서 환호

○…영국군의 포클랜드 폭격보가 전해진 1일 많은 런던시민들은 대처수상과 마찬가지로 3일연휴의 주말여행을 떠나 포클랜드위기를잊고 있었다.

런던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꽃축제 세계탁구선수권대회등 볼행사가 예정대로 치러질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침착했다.

○…「해군·적군맹타」라고 선데이·익스프레스紙는 표제를 달았다.

○…한신문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영국국민을 의식,『최신스코어—영국2(사우드 조지아 포트 스탠리 공황주로) 對 아르헨티나0』으로 풍자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코어는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한 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있었다.

○…포클랜드해역의 기동함대에 파견된 앤드루영국왕자는 1일 벌어진 아르헨티나機들과의 공중전에 참가했었다고 영국함모 인빈서블호에 승선한 영국기자들이 3일보도.

데일리텔리 그라프紙는 영국의 왕위계승서열 2위의 앤드루왕자가 이날 對잠수함 헬리콥터를 타고 영국함대를 공격한 아르헨티나機들과 전투를 벌였다고 전했다.

앤드루왕자(22)는 앞서 자신의 출정문제로 어머니 엘리자베드여왕과 언쟁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는데 엘리자베드여왕은 아들이 전장으로 가서 병력및 군수품 공수등 위험한작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했다는것.

○…3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대처영국수상은 포클랜드분쟁에 강경입장을 취해인기가 급상승하고있다.

1개월전만해도 대처수상의 인기는「영국사상 최하의 지도자」로 기록되는 汚名을 겪었다.

포클랜드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은후 대처수상이 이끄는 보수당도 전당중에서 최고인기를 기록했다.

○…토니·벤노동당중진의원은 1일 아센션의해군장교로부터 약혼녀에게보낸 편지에서『우리정부는 잃어버린 명분을위해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보내고있다. 불쌍한 젊은이들은 포클랜드에 가보지 않아도 이사실을 알고있다』는 내용을 인용, 대처수상에게 화살을 쏘았다.

벤의원은 대처수상의 외아들마크君이 사하라에서 실종당했을때 슬픔에 잠겼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대처수상은 위험속으로 보내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젊은이들의 패션을 창조한다는 런던킹街에서는 고조되는 포클랜드위기가 패션소재로 등장했다. 가게밖에 나붙은 포스터에는『우리가게 기동함대는 당신을위해 봉사할 것입니다』란는 조크가쓰여있었다. 또 한 옷가게는『영국의 포클랜드를 지킵시다』란는글자가 새겨진 T셔츠를 내다 걸어놨다.

○…『영국군침공 격퇴』라고 2일 아르헨티나의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머리기사의표제를 달았다. 1일 영국군의 포클랜드공격개시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때만해도 부에노스아이레스거리는 공휴일인 메이데이를 맞아 전쟁하는 나라답지않게 한산했다.

저녁때가 되어 갈티에리 대통령이 전국에 방송된 TV연설을 통해『아르헨티나는 승리를 쟁취할때까지 포클랜드 수호를위해 싸울것』이라고 말하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거리로 뛰어나왔다.

유난히도 춥고 바람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을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시민들은 대통령궁과「5월광장」에 모여들어『갈티에리 만세』라 외쳐대며 대형국기를 흔들었다. 그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가 하면 피리를 요란하게 울어댔다.

○…영국군이 포트 스탠리공항을 폭격하지 수시간동안 아르헨티나당국은 보도를 보류해 많은 시민들은 인접국인 우루과이, 브라질등의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라디오방송은 간간이 군당국의 전황보도와 정규프로사이에 군대행진곡을 내보냈다. 특히 독립운동가 호세·산·마르틴의 군찬설을 기념하는 노래는 가장 유행하는 곡이 되었다.

○…거리곳곳에는 일단의 젊은이들이 아르헨티나기를 흔들며『영국은 미국의 베트남이 되고 싶지 않으면 물러가라』고 외쳐댔다. 또 영국왕실에 대해 비난했다. 거리의 많은상점창문에는 포클랜드지도가 장식되어 있었고 그밑에는 주권은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대부분 포클랜드분쟁을 처리하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갤럽여론조사가 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82%가 영국과 어떠한 협상에도 반대한 반면 15%만이 협상에 찬성했다.

또 76%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승리할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3%만이 영국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 혼란에 빠진「同盟관계」

## 포클랜드事態 平和的해결실패의 파문

## 美洲기구도 분열危機에

## 美는 中南美 신뢰잃어 蘇 침투저지에 큰차질

영국과 아르헨티나 전쟁은 제한전의 성격이 분명하지만 그파장은 국제적으로 크게 번지고있다.

미국이 분쟁의 평화적해결에 실패, 영국지지를 결정한것은 우선 미국의 뒤뜰인 中南美대륙에서 신뢰를 상실해 앞으로 이지역에서 소련勢 침투저지라는 당면 정책목표에 큰차질을 가져오게되었다.

대부분 중남미국가는 영국해군의 포클랜드공격이 미국의 영국지지때문이라고 믿고있다.

쿠바는 미국의 對英지지를『미 제국주의의 뻔뻔스러운 도움』이라고 비난했으며 엘살바도르 의회의 우파 지도자들도 미국이 美洲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당사국인 아르헨티나는 레이건행정부의 중남미정책에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낸 나라로서 미국이 최소한 중립을 지켜주기 바랐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들도 아르헨티나의 공격적인 국수주의를 꺼림칙하게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포클랜드사태가 악화된 이후 아르헨티나의 입장을강력하게 옹호하고 나섰다.

칠레나 콜롬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라틴어 사용국가들은 포클랜드 군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지지하고 있다.

만약 두나라의 전쟁이장기전으로 들어가게되면 이들 국가들은 정신적지원뿐아니라 물질적지원도 아끼지 않을것이 분명하다.

반면 자메이카등 中美영어사용 섬나라들은 영국을 지지하고 있어 미주기구의 분열은 필연적으로 올조짐이다.

결국 미국은 공개적인 영국 지원으로 지금까지「全아메리카인을 위한 아메리카」라는 명분은 퇴색하고「유럽의 일원」이라는 현실을 중남미국들에게 실증한 셈이다.

따라서 쿠바, 니콰라과 엘살바도르등에서 공산주의 세력 침투저지를 위해 중남미국가들이 결속해야한다는 미국의 명분은 퇴색할것이고 동서대결이라는 의미에서 소련에게 결정적인 개입의 계기를 제공하게 된것같다.

미국의 관리들은 현재 소련의 전쟁물자가 쿠바를 통해 이미 아르헨티나에도착했다는 보도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고있다.

그러나 이관리들은 영국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미국이 영국에 전쟁물자지원등이 실현된다면 아르헨티나도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아르헨티나는미국의반공이념을추구하고있으나『필요하다면 악마하고도 제휴한다』고밝힌입장으로보아 호기를 노리는 소련과의제휴까지도 상상할수있게 됐다.

소련은 아르헨티나의 가장큰 통상대상국이고 아르헨티나농산물의 80%를 사들이고있다. 또 아르헨티나의 원자력발전을위한 농축우라늄을 제공키로 합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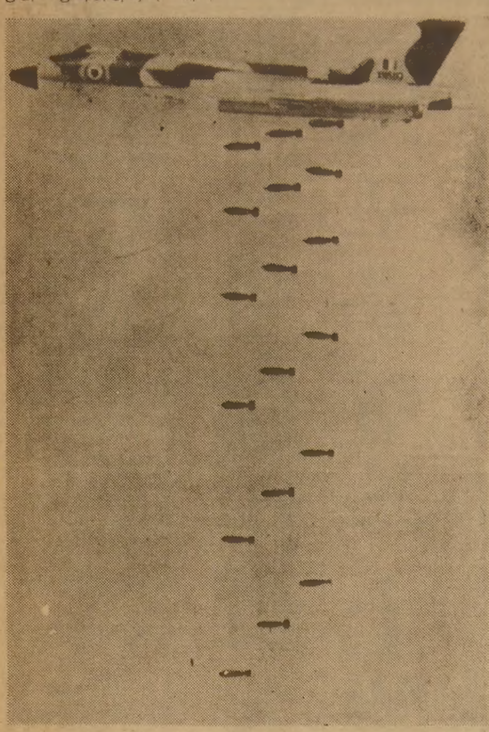
소련도 이미 아르헨티나에 영국함대의 정보를제공해왔으며 군수물자지원도 제의한바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은 또 같은 서방국가간의 전쟁이며 나토방위의주요역할을 담당하고있는 영국해군의 3분의2가 나토의 작전지역을 비우고있어 소련에게 漁夫之利를 주고있다.

영국은 나토에 배속된3분지2의 함정, 6대의 최신예 헌터급잠수함, 반이상의 전투기, 4천여명의정예공수병등을 8천마일 떨어진 포클랜드에 이동시키고있다.

만일 이같은 나토의 공백을이용, 페르시아만에서 새로운 분쟁을 사주한다면 미국과 서구동맹국의 방위체제에 큰 허점이 생길것은 분명하다.

아르헨티나는 원래 제3세계에서 인기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앞으로 전투가계속되면 아르헨티나를 지원하는 제3세계국가가 늘어나고 미국과 서구동맹국이 궁지에 몰리게 될것으로보인다. 【申相頓기자】



◇벌컨機의 폭격훈련 세계최초의 3角翼전략 폭격기인 벌컨제트폭격기가 폭탄투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英國은 1일 이폭격기와 해리어 전투機를 동원하여 포클랜드群島 수도 포트스탠리공항의 활주로를 폭격했다。폭탄21개를 적재할 수있는 이 폭격기는 야간은 물론 악천후에도 저공비행이 가능한 전천후 폭격기다。 【런던 2日AP電送=聯合】

# 英·아르헨의 戰略

## 英、軍事·經濟·外交的 압력

## 아르헨、시간끌며 長期戰채비

영국은 군사력행사와 함께 경제·외교의 3가지압력수단을 동원, 아르헨티나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영국은 최신군사력을 동원, 사우드조지아점령에 이어 포트스탠리활주로를 폭격하는등 군사적압력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무력대결의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경우 아르헨티나본토의 공군기지를 폭격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외신은 전한다.

영국의 핌외상은 워싱턴에서『전투의 종식이나 확대냐는 아르헨티나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아르헨티나의 갈티에리 대통령은『영국이 무력을 계속 행사하는 한 아르헨티나도 끝까지 무력으로 맞설 것이며 결코 白旗를 올리지 않을것』이라고 3일 선언했다.

포클랜드戰의 양상은 영국의 공격, 이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응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아직 한번도 선제공격을 한 일이 없다.

1일 영국함대에 대한 공격도 영국의 함재기들이 포트스탠리폭격에 출격한 공백을 틈타 이루어 졌었다.

영국은 오는 6월중순까지는 포클랜드 전투를 끝낸다는 시간표를 다짜놓았고 군사전문가들은 전한다. 이 때부터는 작전해역에 겨울추위가 엄습, 바다가 얼어붙는등 함대의 작전이 어려워지기때문이다.

영국은 짧은 시간에 우세한 화력과 최신무기를 동원, 아르헨티나의 무릎을 꿇게한다는 작전인 것 같다. 영국의 이런 전략에 아르헨티나는 시간을 벌어가면서 도전에 응전하는 방법으로 버틸 태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영국함대가 시·다트, 엑소제등의 최신미사일이 장비된 영국함대를 무리하게 공격하는것은 자살행위가 될수있다고 내다본다. 시·다트 미사일은 적함이 발사한 포탄·미사일을 중간에서 파괴할만큼 정교하다. 또한 영국함대가 장비한 4·5인치 속사포도 18·2㎞거리의 목표를 명중시킬만큼 정밀하다.

영국은 지난 1일의 포트스탠리폭격에서 바로 4·5인치포의 함포엄호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작전의 애로는 영국의 해잠수함의 위력때문에 항모를 동원할수 없다는 점이다. 본토에서 뜬 전폭기는 포클랜드 상공에 도달하더라도 작전시간이 불과 몇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먼 거리를 비행해온 아르헨전투기를 요격하는 해리어機는 1시간을 맞서 작전할수있다.

아르헨티나 공군력우세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모를 동원해야 하는데 목표를 자동유도 파괴하는 영국핵잠함의 타이거·피시 어뢰가 항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해전에 관한한 세계최고의 권위를가진 미국의 前함대사령관 점왈트는『영국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55、아르헨티나가 이길가능성45』라고 전망하고 있다. 【崔相鎬기자】

◇레오폴도·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일밤 전국 TV연설에서 아르헨이 영국에 승리할때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2日AP電送=聯合】

## 英國의 武器들

### 벌건機 장거리 爆擊用으로
### 해리어機 수직離着·폭탄 3톤

[벌컨] 최초의 3각날개 폭격기인「벌컨」폭격기는 25년전인 지난57년 처음 실전배치된이래 영국의 對蘇핵전략에 있어 주역을 담당해왔으나 이제는 구형으로 밀려 금년 여름부터는 단계적으로 퇴역될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포클랜드사태가 돌발하면서 장거리 폭격능력을 가진 이 폭격기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폭탄으로 재무장하고 실전에 배치된이래 첫임무인 이번 포클랜드폭격에 참가했다.

10톤의 폭탄을 적재할수있는 벌컨폭격기는 목표물인 3인치두께의 포트 스탠리비행장활주로를 정확히 폭격하기 위해 레이저유도장치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영국의 BBC방송은 분석했다.

벌컨폭격기의 이번 출격은 자금까지 英國공군이수행한 전투임무중에서는 가장 긴 무착륙비행이었는데 영국국방성전문가들은 폭격에 실제로 사용된 시간은 3분이었다고 밝혔다.

大西洋중앙에 있는 아센션섬의 기지에서 발진한 벌컨폭격기들은 1만1천㎞를 비행하는도중 빅터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았다.

[해리어] 英國의 최신예 전투기중 하나로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한 해리어전투기는 종래의 전투기들과는 달리 공중에 서머물수도있으며문자그대로 수직이·착륙이가능하다.

해리어 전투기의 최고시속은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있는 미라지전투기의 최대속도인시속2천4백㎞의 절반도 안되지만 기동력은 극히 우수하다.

또 이 전폭기도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면서도 3백m정도의 짧은 활주로만있으면 훨씬 더 많은 연료나 폭탄을 적재할수 있고 영국항공모함들에 장치된 램프(비행기발사시설)를 사용할 경우는 더욱 많이 실을수 있다.

해리어전투기는 2백25㎏짜리 폭탄을 20여개적재할수 있으며 열추적장치를 가진 사이드와인더空對空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해리어전투기들은 한번에 3천6백29㎏의 폭탄을 적재하며 1분당 20발의 포탄을 발사할수있는 30㎜포 2문을 장비하고있다. 【런던=UPI·聯合】

## 메아리

연휴가 겹친 5월 첫머리의 산은 어디없이 초만원이라고 해야 적절할이만큼 온통 원색의 등산복차림으로 붐볐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등산은 한창인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이제는 남녀노유를 가리지 않게 되었고 특히 가족단위의 등산이 늘고있는것은 보기에도 즐겁다.

이렇게 등산이 일반화되었고 등산인구도 급격한 팽창을 보이고 있으나 전원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10인한국등반대의 히말라야원정 도전은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카트만두로부터의 외신을 보면 네팔관광성은해발6천9백86m의 히말봉에 등정하기위해 한국여성등반대가 3천8백m 고지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했다고 공식발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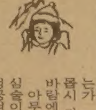
히말라야는 산스크리트로 눈이 덮인곳을 뜻하는 말로서 인도와 티베트 사이에 가로뉘여 西로는 인더스강에서 東으로는 브라마푸트라강에 이르는 길이 2천4백㎞、폭1백60내지 2백40㎞의 산악지대다. 그 품안에 네팔、시킴、부탄과 같은 나라가 들어있다.

흔히 히말라야 등반에선 드세고 적운적인 남성산악인들까지 오금을 못 쓸수가있다。 험준한 산세도 문제이지만 보다 더한 기후의 변덕때문이다.

### 頂上앞의 女性

그 산턱 2천1백m 높이서의 겨울 평균기온은 7도이며 여름에는 18도이다. 하지만 계곡같은데서는 이맘때의 낮기온이 32도~37도나된다. 또 2천7백m지점의 겨울 월 평균기온은 0도이나 4천5백m서는 대개 여름에도 0도이하가 된다.

그에보태 큰문제는 더 있다. 기온의 고저폭 못지않게 상상할수 없이 눈보라가 휘몰아 치는가 하면 안개마저 눈앞을 몹시 가리곤 한다. 이런 날씨 바람에 눈사태도 매우 잦다.



아무도 막을수없는 이번덕과 심술이고보니 히말라야등반의 성공여부가 운수에 크게좌우되는양, 일컬어지는것은 당연한 귀결같다. 그런만큼 우리 여성등반대의 행운과 전투를 빌고픈 마음 더욱 간절하다. 이번 등반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여성등반으로는 히말라야등정의 첫기록을 세움과 동시에 공전의 快事를 이루게 된다.

지난날 내외인습에 묶여서 규방을 벗어나거나 이웃나들이도 제대로 못했던 옛일에 비겨 생각할때 격세의 감을 새삼 금할수없는 장거이다. 거듭 성공을 빈다.

## 갈티에리 물러나면 後任 오르필라有力

【뉴욕2日聯合】레오폴도·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현포클랜드위기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그 후임은 알레한드로·오르필라 美洲機構(OAS)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誌가 2일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OAS소식통들을 인용, 그같이 보도하고 아르헨티나軍이 포클랜드群島를 침공하기전부터 몇몇 정당지도자들이 아르헨티나人인 오르필라사무총장이 잠정 대통령이 되는 문제와 관련, 그에게 접근했었다고 말했다.

533·2301

## 英機動함대 우드워드總司令官

### 14세에 海軍입대 15년만에 첫艦長
### 말수 적고 數學뛰어난 潛艦전문가

1일상오 포클랜드군도에 폭격을 감행한 영국기동함대의 존·우드워드사령관(50)은 포클랜드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해도 매일같이 런던교외의 조그마한 집과해군본부 사이를 출퇴근하며 책상에앉아 사무만보는 이를테면『內勤장군』이었다.

갈색머리때문에『샌디』라는 별명을가지고있는 우드워드소장은 지난주 그의 旗艦인 허미즈호선상에서 기자들에게 영국의 사우드조지아섬탈환은『애피타이저(식사전에 식욕을 돋우기 위해 먹는것)에 불과하며 이제 바야흐로 육중한 펀치를 날릴 차례』라고 호언을해 영국민의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우드워드 소장은 어찌일인지 다음날은 억양을 낮추어『나는 내자신을 매각이 무서운 눈에 싸움밖에 모르는 군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양측에서「이제 그만 합시다」하는 말이 나오지않는한 이번 사태는 기나긴전투가 될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전투를 피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마거리트·대처首相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었다.

대처수상은『우드워드사령관의 말이 때마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때마다 새롭다』고 힐난하기도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인물로 통하는 우드워드 소장은 지난 46년 14세의 나이로 해군에 입대, 61년 처음으로 잠수함 타이얼리스호의 함장이 되었다.


#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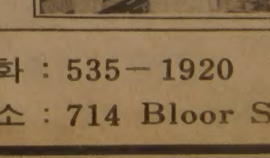
May 3 - May 29

| | | |
|---|---|---|
| Y & S Twizzler Red | 70x5 ¢ | $ 1.75 |
| Maynard Wine Gums | | 4.29 |
| Tootsie Roll | 36x40 | 8.69 |
| Planters Peanuts | 27x40 | 6.35 |
| Neilson Family Bar | 24x99 | 14.59 |
| Neilson Jerry Milk thick Bar | 36x55 | 13.25 |
| Allens Billy ( Red&Black ) | 48x10 | 3.16 |
| Allens Lacs | 60x 5 | 1.99 |
| Allens Ribbons | 48x10 | 3.15 |
| Allens Koo Koo | 48x10 | 3.15 |
| Lotsa Fizz | 36x25 | 5.89 |
| Wilson pop | | 5.39 |

Victoria day에 필요한 Fire Wor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May16(일) 8:00a.m.-2p.m. May22(토) 8:00a.m.-1p.m.
May23(일) 8:00a.m.-2p.m. May(Victoria day) 8:00a.m.-3p.m.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 개업 3주년기념스페샬세일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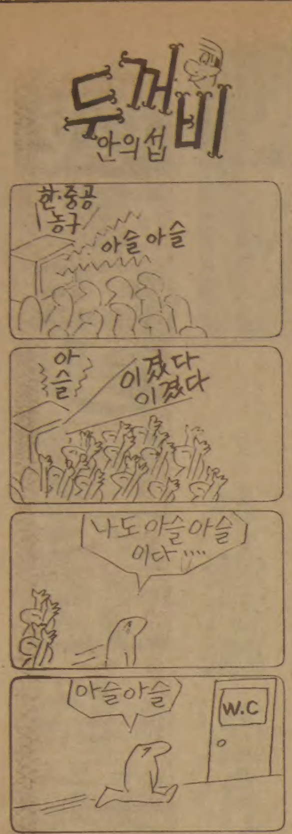
주님의 사랑안에서 지난 3년동안 본서점을 애용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교민들과 교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서점은 미력하나마 문서복음 사업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계속 애용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호의와 성원에 보답코저 개업3주년 기념 특별할인판매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면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위에 넘치는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 토론토 종교서관 —

스페샬세일기간 : 5월1일부터 15일까지
영 업 시 간 : 10시반부터 저녁7시 (주일휴업)
품 목 : 기독교및 일반서적, 설교및 성가테입, 성화및 각종선물용품

종교서관 (아리랑식당옆)
전 화 : 535－1920
주 소 : 714 Bloor St. W.




# 「운전사過勞」가 慘事불렀다

## "마주온車나 장애물 없었던狀況"

### 警察、石窟路버스墜落 조사

속보=慶州 석굴로 관광버스추락사고원인수사중인경찰은 운전사 崔錫圭씨(45)가 관광회사인 세방여행사의 무리한 운행계획에따른 과로로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입원중인 운전사崔씨가 의식을 회복하기를기다리고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운전사 崔씨는 지난달28일부터 30일까지 여고수학여행단을 태우고 설악산을다녀온후 쉬지도 못하고 1일새벽6시 光州연초제조창직원을 태우고 光州를 출발、부산太宗臺·梁山通度寺등을 거쳐 이날하오2시에 慶州에도착하는등 무리한 운행을 강행했다는것。

경찰은 또 사고순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나 장애물이 없었다는 안내양 崔英伊양(19·중상)과 처음신고자인 목격자 朴재홍씨(40·浦項市松島洞山1)의 진술도 이같은 과로운전을 뒷받침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버스도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을것으로 보고 정비이행여부에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고있다。

전세관광버스는 운행노선、배차시간등이 일정치않아봄、가을의 행락철마다 회사측의 무리한 운행으로 운전사와안내양들은 휴일없는 원거리근무에 과로가 겹쳐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한편 이날 사고로 光州연초제조창직원부부등 모두 1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고로 洪性麟씨(44)、부부 金俊喆씨(43)등 부부 2쌍이 한꺼번에 숨져 이들의 자녀9명이 졸지에 고아가 되었다。

### 死亡者합동 慰靈祭

【慶州】버스추락사고로 숨진 사망자11명의 명복을비는 합동위령제가3일하오1시佛國寺대웅전에서열렸다。【聯】

### 全南지사、慶州방문 死傷者가족 만나봐

【光州】光州市는 2일 慶州관광버스추락사고의 사망자와 중상자가족들에게 각각20만원、10만원씩의 위로금과 한달분의 구호양곡을 전달했다。

한편 金稱植전남지사등 4명은 이날하오 慶州에 도착、사고대책본부가 설치돼 있는 慶州市를 방문한뒤 수습현황등을 설명듣고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들러 가족들을 위로했다。【聯】

### 위문금 1천만원

【慶州】慶州관광버스 추락참사희생자들에대한 각계의 위문금품이 답지하고 있다。

慶州시장실에설치된교통사고수습대책위원회에접수된위문금품은경북도직원일동20만원、석굴암주지30만원등모두 1천1백40여만원에달한다。

### 燃燈에불 암자全燒 千여만원 피해입어

【釜山】2일 새벽3시께 釜山市 南區大淵5洞317 불심원암자(주지張順南·33·여)에서 불이나 건평30여평의 암자1채와 암자안에있던 시주금30만원、탱화3점、불상、가전제품등을 모두 태운뒤 20분만에 꺼졌다。

### 延大、무악祝典축소

연세대 학도호국단은 3일부터 8일까지 열릴예정이던 동교창립97주년기념무악축전중 일부행사는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당초 계획된 79개행사가운데 간호대의 연극공연、법대의 학술토론회등 8개행사만 개최하게된다。

### 승용차 正面충돌 3명轢死…셋重傷

【大田】2일하오5시45분께 충남扶餘郡石城面正覺里지경고개에서 충남7아3606호 2.5톤타이탄트럭(운전사 김정환·29)과 충남1가2459호 포니승용차(운전사 이진길·42)가 정면충돌、승용차에 타고있던 일가족6명중 운전하던 李씨와 李씨의 장남 재호(15)、차남 진우군(12)등 3명이 숨지고 李씨의 부인 양희수씨(40)등 3명은 중상을 입고 論山읍 백제병원에서 가료중이다。

### 20代여인 被襲 散策하다 남자死亡

【大邱】1일 밤11시10분께 大邱市東區孝睦洞 망우공원내를 산책중이던 조해용씨(28·大邱市中區大鳳1洞121)와 조씨의 애인 李모양(27·大邱市南區鳳德洞)이 흉기를든 20대청년 2명에게 피습당해 조씨는 숨지고 李양은 현금6만5천원을 빼앗겼다。【聯】

## 金芝美·羅勳兒 파경說

### 同居6년만에…羅의 컴백 때맞춰

영화배우 金芝美양(45)과 가수羅勳兒군(36)커플이동거생활 6년만에 헤어진것으로 알려졌다。

3일 측근에따르면 이들이 헤어진 표면상의이유는 최근 가요계에 컴백한 羅勳兒가 옷차림등에서 품위를잃어金芝美와 불화가 시작됐다는것인데 정확한결별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金芝美는 오는6·7월께 언니가있는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밝히고 大田에있는레스토랑草亭、분식집、같이살던 아파트등도 이미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커플은 지난76년7월9일 서울남산외교구락부에서 결혼을 발표한뒤 결혼식도 올리지않고 동거해왔다。

◇金芝美, 羅勳兒커플의다정한한때。정말그들은헤어졌는지…

◇아쉬운 解渴…6·4mm

오랜 봄가뭄끝에 3일한때 비가 내렸으나 해갈에는 미치지못했다。이날 서울을 비롯한 中部지방에는 폭풍주의보가 내려진가운데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왔는데 강우량은 서울이 4.5、水原이 6·4mm에 그쳤다。한편 연휴 일요일이었던 2일 전국의 관광지와 유원지에는 녹음이 우거진가운데 행락인파로 붐볐다。【경기金浦郡高村面新谷里=崔東完기자찍음】

# "표준말로 합시다"

## 억센 慶尙道사투리 고치기 異色캠페인

### ——大邱직할市 중심으로 활발히 展開

【大邱이동독자부=申鉉鈺기자】 경상도 사람들이「정말 만만찮은일에 손을댔다。경상도의 억센사투리、조상전래의방언을 표준어로 고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시작한것。지난 4월부터 大邱직할市와경북도내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있는 이색다른 캠페인은 5월에 접어들면서 각가정의 학부모와 직장에까지 번져나가면서 경상도전체가 표준말을 새로배우느라 비지땀을 흘리고있다。

## 국민교·가정·職場까지 번져

## 濟州·全北등에선 이미成功

이운동이 시작된것은 지난달10일께 大邱市교위가「표준어실천방안」을 마련해 각급학교에 시달하면서부터였다。『일일생활권이 된지 오래인 조그만나라에서 타도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난스런 사투리를 그대로써야하느냐』는 고위층의 지적과 사투리여치여 항상 제자리걸음인 도내 국어교육의 문제점에 착안、아직 언어습성이 완전히 굳지않은 국민학교 학생들로부터 길들이기로 한것。

大邱시교위는 또 효과적인 표준말 교육을 위해 시내 국민학교 국어교사들의 모임인 국어과연구회(회장 李世洛 靈仙국교 교장)의 50명 회원으로 하여금 국교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지방에서 많이 쓰이는 사투리를 찾아 일람표를 만들도록 했는데 이일람표는 늦어도 올해1학기말 까지는 마련돼 각학교의 교육자료로 활용될예정이다。

경북도교위에서도 4월들어 일선 초중고 교사들이 표준말쓰기에 앞장서고 어머니교실등을통해 학부모의 표준말 사용을 계도하도록가세하고 나섰다。

大邱 明德국교교감 姜爽씨는『교사들이 사투리를 쓰지않게 교장이 책임지고 시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업현장순시등을 통해 노력은하고있지만 어떤때는『어어 李선생 자네는 와 사투리쓰노』하고 지적하다가『교감선생님도 사투리쓰시네요。「와」가 뭡니까』하고 되려 핀잔을 당하곤한다며 웃었다。

서울에서 이학교로 전근해온 여교사 金福枝씨(42)는『부임직후 서울말씨로 교내방송을 했더니 아이들이 무슨소린지 알아듣지못해 표준말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국어담당 金相東교사는 일부에서는 표준말교육이 서울말씨(억양)를 가르치는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말하고 사투리의 교정은 어휘나어법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억양을 서울사람처럼 하자는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투리를 없애는 운동이 이지역에 국한되기보단 사투리를 쓰는 다른지역에서도 동시에 활발히 진행돼야 효과적일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위 鄭燦變장학사(45)는『이지방의 사투리 사용이 세월이 가도 조금도변함이 없음은「광복37년동안 학교의 국어교육이 무엇을해 고있느냐」를 반성케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申鉉成장학사(40)도『경상도는 그곳적인 제주도 사투리를 완전히 퇴치해버린 濟州도민들을 본받아야할것』이라면서『연구수업겸 학차 全南北지방을 방문했을때 수업시간동안 거의완벽한 표준말을 쓰고있더라』고 부러워했다。

明德국교 국어담당 金교사는 요즘 어린이들이 TV시청기회의 확대등으로 표준말 사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명사형사투리는 많이 줄고있는 추세라고 했다。

金교사는 어린이들보다 사투리가 몸에 베 버린 어른들에게 대한 교육이 더큰문제라면서『요즘 각학교 국어교사들의 사투리를 지적해주느라고 바빠졌다』고 말했다。

「지역간 감정해소」「국민정신의 통일」등 거창한 구호로 내걸기보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귀에 거슬리는 거친 사투리를 고치려는 노력은 권장될 가치가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인데 한 시민은『글쎄요。權君이래의 실험인데 어떤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고 했다。

## 宮柳面개발위해 道內기관과結緣

【宜寧】경관총기난사사건 사고수습대책본부는 3일 사고를 당한 宮柳面邦村리등 4개부락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보상을 하기위해해 도단위기관·군·면단위기관·도내기업체등과 자매결연토록 하기로 했다。

사고대책 수습본부에 따르면 邦村里(75가구)는 慶南도청 宜寧군청 宜寧郡농지개량조합 宮柳面사무소 馬山한일합섬과、雲溪里(85가구)는 慶南道교위 宜寧郡교육청 宜寧전매서 宜寧산림조합 宜寧축협 宜東중학교 晋州대동공업과 각각 자매관계를 맺는다는것。

사고수습 대책본부는 배상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자매결연식을 갖기로 했다。【聯】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02>

朴婉緒 作
金光培 畵

### 明暗 ㊳

『빌어먹을!』

인재는 한쭘이 미진한지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입술을 우물대며 가당치도않은 쌍소리로 투덜댔다。

『네?』

『아니、암것도 아녜요。우리 과의 팔사나운 녀석 생각이 나서』

인재는 권태로움이지나 차라리 심란한 낯색으로 말했다。

오목이도 여태 한 말이 그의 환심을 사지못했다는 걸 알아차렸다。세상 여자들은 어떻게 남자들의 환심을 사는걸까。마치 그방법을 자기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같은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허둥지둥대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참말을 하고싶은 갈망과 거짓말이 무진장 흘러나올것같은 예감때문에 그녀는 어쩔줄을 몰랐다。

『할머니는 신경통이셨어요。지금도지만은、할머니가 함지박을 인 식모애를 앞세우고 다리를 절룩대며 비탈길을 느릿느릿 올라오시던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우리학교는 언덕위에 있었거던요。들창으로 우리 할머니 모습만 보이면 벌써 책을 덮는 아이도 있었어요。곧 점심시간 종을 칠테니까요。우리 할머니 시계처럼 정확했죠。선생님도 군침을 삼키셨구요。육학년내내 할머니는 제 점심과 함께 선생님 점심까지 해나르셨으니까요。우리 반에서뿐 아니라 학교전체에서도 할머니의 정성과 극성은 소문이 자자했어요。선생님들간에도 제 담임선생님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구요。식모가 함지박을 내려놓으면 할머니는 혹시 국 한방울이라도 엎지르지않았나 조사를 해보시고 선생님 책상에 한상、제 책상에 한상 차려놓고 다 먹을 때 기다렸다가 빈 그릇을 챙겨가지고 가시는 거였어요。보통 도시락이 아니라 국 불고기 나물 김치를 갖춘 상차림이어서 전 그저 친구들보기 챙피하기만 했는데 지금생각해 보면 날마다 그게 이만저만한 정성이었겠어요?』

그녀가 고아원에서 다닌국민학교에 그런 애가 있긴 있었다。가슴을 앓는 허약한소녀이었는데 요양삼아 시골외갓집에 와있으면서 학교에다녔다。점심시간마다 선생님과 외손자의 점심을 새로 지어 나르는 그애 외할머니의 정성은 그런 유별난 학부형이 없는 시골국민학교에선 유명한 명물이었다。벌써 오래전 일이었다。왜 그 할머니가 지금 떠올랐는지 알수 없었다。더군다나별로 친하지도 관심있지도 않았던 그 허약한 소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망발이 왜 일어났는지 알수 없었다。

『그런 회사에 들어가봐야겠어요』

인재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벌써요?』

오목이는 아직도 무진장한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물었다。인재의 눈에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빛이 스쳤다。

『또 만나요。선물 고맙고 점심 잘 먹었어요』

인재가 뿌리치듯이 서둘러서 가버리자 오목이는 새삼스럽게 자신이 흘렸던 엄청난 부피의 거짓말에 놀랐다。

왜 그랬을까?

참말이 무서웠기 때문이다。그녀가 거짓말 무덤이속에 꽉꽉 숨겨 놓은 참말은 인재를 좋아한다는 한마디였다。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해본 것은 처음이었다。오목이는 그 참말이 무서웠다。

## 流星의 賦 <37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 고독한 英雄 ㉙

『귀신이 탄복한다는 말은 이럴 때를 두고 쓰는 문자이군』

하고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조인식이 말했다。그러나 신불은

『화약이 이만큼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일당백(一當百)할 수 있지 않겠소』

하는 덤덤한 말을 남겨 놓고、

『한숨 실컷 자야겠다』

며 바위 사이에 몸을 던지곤 코를 골기 시작했다。

홍계남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신불의 얼굴을 말끄러미 내려다 보았다。어느덧 그의 뺨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호담한 장사、기막힌 책사를 조정이 몰라주니 이 어찌 한스럽지 않느냐)

하는 기분이었다。그 기분은 그냥 그대로 홍계남 자신에게 합당되는 마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감상은 순간의 일、홍계남은 다시 작전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한편 달리 조총부대를 편성하여 조총의 취급방식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우희다수가는 뒤 늦게서야 홍계남의 술책에 넘어 갔다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그의 부장을 시켜 홍계남을 추격하게 했다。그런데 그 추격군이 홍계남의 전초선에 걸려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자 혼비백산 도망하고 말았다。

『홍계남은 신장(神將)이다』

하는 소문이 적진에 널리 퍼져 미리 기가 질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렵、각지에서 의병이 벌떼처럼 일어 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다。명나라의 구원병이 도착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홍계남은 용기 백배하여 수원성(水原城)의 공략을 계획했다。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경기감사 심대가 해괴한 문서를 보내온 것이다。

『…듣건대 귀하는 의병에 칭탁하여 사당을 만들어선 기계(奇計)로써 한 성을 드나들며 양민의 집에 불을 지르고、재물을 약탈하고、그 약탈한 재물을 또한 양민으로 하여금 운반케 하는 행패를 부렸다고하는바 실로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대죄이니라。그러나 기왕에 약간의 공로가 불무하였다기에 관서(寬恕)로서 대할 것이니 귀하가 거느리고있는 병사와 무기를 수원부사、또는 양주목사에게 차출하여 관명(官命)을 기다리도록 하라。근자 의병이 처처에서 일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의병임을 빙자하여 방자한 행동을 하는 자가 불소하므로 엄히 명하는 바이니 이 서면의 해달 즉시 신속한 행동이 있을 지어다…』

실로 이것은 청천에 벽력과 같은 것이었다。조인식이 흥분하고 신불은 당장 심대에게로 달려 가서 결판을 내야겠다고 으르렁 댔다。

『왜놈에게 붙은 간악한 놈들의 집에 불을 질렀기로소니 그것이 무슨 죄인가。왜놈의 화약을 탈취한 것이 어떻게 재물의 약탈로 되는 것인가。화약의 운반에 백성들의 힘을 빌린 것이 어찌하여 행패로 되는 것인가。그리고 지금 관군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관군이 적병 앞에 야무진 반항이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가』

홍계남은 심대에게 대한 대응책보다도 흥분한 부하들을 제어하는데 안간 힘을 써야만 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533-2361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 대매출 —
산수이 전축, 스테레오
Sansui
WEST지점
전광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정운, 전병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 朴鎭淑 千金의 포물선슛

# 終了15秒남기고 中共추격에 쐐기

ABC女子

## 朴贊淑·金和順부진 초반苦戰

## 4초前 장대陳月芳의 슛不發

65-64 勝利의순간 ◇한국과 中共의 대전。한국이 65—64로 극적 승리를 거둔 순간 朴鎭淑(11번)등이 기쁨에 넘쳐 높이 뛰고있다。【東京3日聯合=聯合】

【東京=李基洪특파원】 포워드 朴鎭淑의 결정타가 한국을 침몰위기서 구출했다。43초를 남기고 中共선수가 반칙을 범하자 申東坡감독은 초조하게 작전타임을 불렀다。이때 스코어는 63—64로 中共의 1점리드。숨막히는 상황이었다。골밑슛을 기대할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누가 외곽슛을 쏘느냐가 문제였다。朴良桂를 중심으로 오른쪽의 金和順, 왼쪽의 朴鎭淑에게 볼을 돌리던 한국은 15초를 남기고 朴鎭淑이 통렬한 중거리를 적중시켰다。

中共의 공격시간은 15초。한국으로서는 안심할수 없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반격에나선 中共의 宋曉波가 7초를남기고 골밑슛을시도했으나 불발했으며 2m10의 장신陳月芳이 4초를남기고 리바운드볼을잡아 던졌으나 역시 노골, 승리는 극적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전반 한국은 朴贊淑 朴鎭淑 金和順 洪英順 洪惠蘭을 스타팅멤버로 기용했다。그러나 대들보 朴贊淑이 中共의 장신에 완전히 가리고 외곽슛마저 부진, 기선을 빼앗겼다。양팀 모두 2, 3지역방어로 배수의진을치고 결전에임했다。장신을 활용한 中共은 16—8, 18—10으로 앞서갔으나 한국은 洪英順의 중거리로 따라붙었으나 점차를좁히지 못했다。한국은 朴良桂 權明姬를 기용하면서부터 공격의 활파구를열고 朴良桂의 잇단 중거리로 20—20, 첫타이를 만들었다。그러나 두득점원 朴贊淑과 金和順이부진, 朴鎭淑의 중거리가 터지면서 추격, 전반을 38—37까지 따라붙었다。

후반들어서자 한국은 權明姬의슛으로 39—38, 처음 역전리드를잡고 이후中共과 일진일퇴의 시소를 거듭했다。中共은 주전들의 파울이 많아지자 朴贊淑을 효과적으로 막지못했으며 朴鎭淑의 통슛에 속수무책이었다。한국은 中共의추격을 허용하여 5분16초를 남기고 57—57로 타이를 허용했으며 이후 62—62까지 세차례나 타이스코어를 이루었다。최후의 고비에서 中共반칙으로 얻은 朴贊淑의 프리드로 1개가 실패, 64—63으로 뒤졌으나 15초를남기고 朴鎭淑이 천금같은 슛을 성공시켰다。스코어는 65—64。역대 中共과의 대결서 가장 좁은 점차였다。

◇결승리그 제2일

한 국 65 (28—26, 37—38) 64 中 共
(3승) (2승1패)

일 본 174 (92—9, 82—12) 21 마카오
(3승) (3패)

◇결승리그 제1일

한 국 187—26 마카오
중 공 147—21 싱가포르
일 본 132—35 말레이지아

◇韓國·中共 역대전적

| 때 | 대 회 명 | 개최지 | 한국—中共 | 승·패 |
|---|---|---|---|---|
| 74·9 | 제7회 아시아 경기 | 테 헤 란 | 84—71 | 승 |
| 76·11 | 제6회 아시아 선수권 | 홍 콩 | 63—73 | 패 |
| 78·7 | 제7회 아시아 선수권 | 콸라룸푸르 | 63—61 | 승 |
| 78·12 | 제18회 아시아 경기 | 방 콕 | 77—68 | 승 |
| 80·5 | 프레 올림픽 | 바 르 나 | 61—59 | 승 |
| 80·9 | 제8회 아시아 선수권 | 홍 콩 | 101—68 | 승 |
| 82·5 | 제9회 아시아 선수권 | 東 京 | 65—64 | 승 |

| 선수 | 득점 | 리바운드 | 어시스트 | 반칙 |
|---|---|---|---|---|
| **한 국** | | | | |
| ④權明姬 | 8 | 4 | 0 | 5 |
| ⑤朴良桂 | 7 | 3 | 12 | 3 |
| ⑥金和順 | 12 | 3 | 3 | 2 |
| ⑦全美愛 | 0 | 1 | 0 | 0 |
| ⑧洪惠蘭 | 0 | 1 | 2 | 1 |
| ⑨洪英順 | 6 | 3 | 3 | 2 |
| ⑪朴鎭淑 | 16 | 2 | 1 | 4 |
| ⑭金福順 | 0 | 2 | 0 | 0 |
| ⑮朴贊淑 | 16 | 6 | 1 | 2 |
| 計 | 65 | 25 | 22 | 19 |
| **中 共** | | | | |
| ④陳月芳 | 4 | 5 | 0 | 2 |
| ⑤孫瑞雲 | 2 | 0 | 1 | 0 |
| ⑥劉 敏 | 2 | 3 | 0 | 2 |
| ⑦宋曉波 | 19 | 0 | 2 | 4 |
| ⑧邱 晨 | 13 | 4 | 3 | 1 |
| ⑩修麗娟 | 15 | 8 | 2 | 3 |
| ⑫洗麗清 | 1 | 5 | 9 | 4 |
| ⑭柳 青 | 4 | 2 | 0 | 4 |
| ⑮張月琴 | 4 | 0 | 1 | 1 |
| 計 | 64 | 27 | 18 | 21 |

### 千5백여 동포應援團 열광 勝利의순간 끌어안고 눈물

○…5천여 관중이 들어선 요요기체육관은 한국, 中共의 응원단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中共보다 5백여명이많은 1천5백여 한국동포응원단은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다가 한국의 승리가 확정되자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흘렸고『대한민국만세』를 외치기도했다。민단 신주쿠(新宿)지부 李昌夏부단장은『내생애에이처럼 기쁘고 감격적인날은처음…』이라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가슴졸이던 경기가 끝나자 朴贊淑을포함한선수 임원들도 한덩어리가되어 한동안 떨어질줄을몰랐다。일부 동포 응원단은 코트로 뛰어내려와 선수들의 손을잡으며『日本도꺾고 꼭 우승해달라』고 격려했다。

외신기자회견을 마치고 朴은 日本여학생들로부터 사인 공세에도 시달렸다。매스컴의 포커스는 朴贊淑에 쏠렸다。朴은 경기후 프레스룸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공세에 10여분간 시달렸다。기자회견서 외신기자들은『朴은 경기도 잘하지만 외모도 빼어났다』고 말했다。【李基洪특파원】

### 申東坡감독

## 비장의 兵器로 감춰둔 朴鎭淑 잘해줬다

나는 대표팀을맡아 이제까지 中共과 6차례대결했는데 이번이 가장힘들었다。예상했던대로 리바운드가 달렸고 속공이 잘되지 않았다。金和順이 평소때보다 부진, 전반전서 공격이 풀리지 않았다。金和順이 제페이스만 유지했더라면 쉽게 이겼을 것이다。

이번대회서 비장의 무기로 감춰둔 선수가 朴鎭淑이었다。朴은 한국선수들 가운데 슛이가장정확하다。오는11월 뉴델리 아시안게임서도 中共을 꼭꺾겠다。

### 朴鎭淑선수

## 몇秒 남았는지도 모르고 渾身의 슛날려

말할수없이 기쁘다。申東坡 감독께서 마지막 작전타임을 불렀을때 朴良桂에게 골밑찬스가 나지않으면 나에게 볼을주라고 지시했다。골밑 찬스는 나지않았고 볼은 외곽에서빙빙돌았다。시간은 자꾸 흘러갔다。내가 朴良桂로 부터 볼(패스)을 받은 위치는 왼쪽 외곽45도각도였다。이위치는 내가 가장좋아하는 슛 위치였다。몇초가 남았는지도 모르고 볼을 잡자마자 슛을 날렸다。적중이었다。농구 선수생활를통해 이처럼 극적인 순간은 없었다。혼신의 힘을 다해 뛴 한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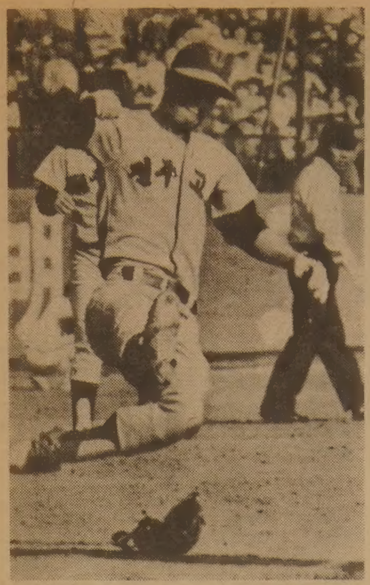
---

### 대통령盃 고교野球

# 信一高 釜山高 4強격돌 慶北高 全州高

## 慶北 柳仲逸구원力投… 世光추격 뿌리쳐 3—2

## 全州 투수진亂調의 仁川 초반에 두들겨 7—4



◇4強도약의 先制點 全州高의 첫 전국 4強 도약。仁川高와의 준준결승전서 1회말 포볼로 나갔던 李熙城이 金滿后의 적시타로 홈인, 선제점을 올리고있다。

慶北高, 全州高, 信一高, 釜山高가 금년시즌 첫전국대회인 제16회 대통령盃고교야구서 4強고지에 올라섰다。

지난해 4冠의 영예를 차지했던 慶北高는 2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7일째 준준결승전에서 6회초 柳仲逸의 동점타, 7회초 金容喜의 결승2루타로 3—2의 리드를잡고 8회말 3번째역전을 노린 世光高가 안타와 2포볼로만든 無死만루의 위기를 柳仲逸의 구원 역투로전져 1점차로 신승했다。재치있는 수비로慶北수비의 핵을 이루고있는유격수 柳仲逸은 8회말 고비에서 마운드에 올라 볼·카운트 0—3에서 世光6번朴熙鍾을三振으로 잡았으며 7번 鄭鋼燮의 스퀴즈·번트를 병살타로 처리, 풍전등화의慶北을 구했다。

서울시 예선패자전에서 부활했던 信一高는 이날계속된 大邱高와의 연장경기 13회말 無死만루의 찬스를 1년생투수1번金廣謙의결승타로살려 2—1의극적승리를거뒀다。

한편 全州高는 仁川高투수 朴商範 朴元鎬의 난조를 틈타 초반 맹타를 터뜨려 7—4로 낙승, 79년 大田전국체전우승이후 처음 전국대회 4強에 진출했다。

信一—釜山, 慶北—全州의 준결승은 비로 연기돼 4일 열린다。

◇제7일준준결승

| | | | | |
|---|---|---|---|---|
| 인천고 | 001 | 100 | 020 | 4 |
| 전주고 | 232 | 000 | 00× | 7 |
| 경북고 | 010 | 001 | 100 | 3 |
| 세광고 | 001 | 010 | 000 | 2 |
| 대구고 | 000 | 100 | 000 0…0 | 1 |
| 신일고 | 100 | 000 | 000 0…1 | 2 |

〈연장13회계속경기〉

### 薛旻敬·金榮煥우승 實業테니스 閉幕

실업테니스 1차 연맹전이 2일 群山서 폐막, 여자단식 결승서 薛旻敬(농협)은 金壽玉(농협)을 2—0으로 꺾고 우승했다。남자 단식결승서도 金榮煥(대우)이 李龍洙(상은)를 2—0으로 격파, 우승했다。

◇최종일결승

▲남자단식 金榮煥2 (6—1, 7—5) 0 李龍洙
(대우) (상은)

▲여자단식 薛旻敬2 (6—1, 7—5) 0 金壽玉
(농협) (농협)

### 光信商 2연승 전국남녀 高校농구

제8회 전국남녀 고교농구대회 이틀째경기가 3일 東國大체육관서 속행, 남고A조서 光新商高는 群山高를 64—54로 제압, 2승으로 선두에 나섰다。

---

# OB, 首位올라

## 프로野球 三星에 逆轉勝 6—5

## 새監督해태 青龍대파 11—4

## 3連敗삼미, 롯데꺾어 10—7

프로야구 OB베어스는 2일 淸州구장에서 열린 三星라이언즈와의 경기에서 연장 10회말 李根植의 굿바이 히트로 결승점을 올려 6—5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0승5패로 三星과 자리바꿈 단독선두에 나섰다。

OB베어스는 이날 朴哲淳이 완투하고 尹東均 金宇烈 李洪範의 솔로홈런을 포함, 장단 13안타로 三星마운드를 두들겨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해태타이거즈는 光州구장에서 MBC青龍을 11—4로 제압, 趙昌秀감독대행이 팀을 맡은 이래 2연승을 거두어 7승8패를 마크, 4위의 MBC를 5위로 끌어내리고 4위로 부상했다。

三美슈퍼스타즈는 金慶男이 5타수5안타 5타점, 趙興雲이 5타수5안타3타점을 올리는 수훈을 세워 롯데자이언츠를 10—7로 누르고 3연패만에 첫승리를 거뒀다。

◇전기중간순위 (2일현재)

| | 팀 | 승 | 패 | 승 률 |
|---|---|---|---|---|
| ① | O B | 10 | 5 | 0·667 |
| ② | 삼 성 | 10 | 6 | 0·625 |
| ③ | 롯 데 | 7 | 6 | 0·538 |
| ④ | 해 태 | 7 | 8 | 0·467 |
| ⑤ | M B C | 7 | 9 | 0·438 |
| ⑥ | 삼 미 | 4 | 11 | 0·267 |

◇2일 전적(청주)

| | | | | |
|---|---|---|---|---|
| 삼 성 | 000 | 400 | 100 | 5 |
| O B | 101 | 100 | 201 | 6 |

〈연장10회〉 ▲홈런=尹東均(1회) 金宇烈(4회) 李洪範(7회·이상OB)

◆전주

| | | | | |
|---|---|---|---|---|
| M B C | 200 | 010 | 100 | 4 |
| 해 태 | 000 | 106 | 04× | 11 |

▲홈런=金一權(6회) 金準桓(8·회이상해태)

◆춘천

| | | | | |
|---|---|---|---|---|
| 롯 데 | 001 | 131 | 010 | 7 |
| 三 美 | 011 | 502 | 01× |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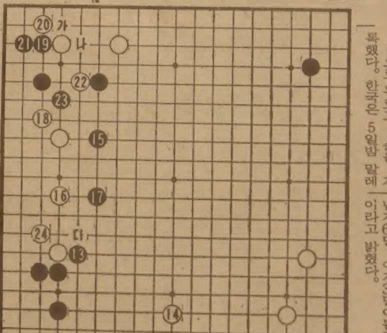
【聯合】

---

###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 第2譜 13~24 (각5시간 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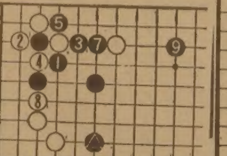
白(7段) 河燦錫〈3勝2敗〉
黑(6段) 徐能旭〈2勝3敗〉



徐6단은 역시 혈기방창한 탓인지 이 바둑 최초의 문제수를 두어버렸다。黑13으로는 의당 白14에 선착해야 되지 않느냐고, 국후에 누구보다도 河7단이 선배의 입장에서 충고를겸한 의견발표를했고 徐6단도 다수고개를 크게끄덕였다。이에 동조하자 黑15, 17이 실속없는 대규모포위라는 중론에도 기꺼이 수긍했던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발생했다。다름아닌 黑21。이수는 마땅히 黑1로 호구막음할 자리다。여기서 白은 3자리로 응할밖에없는데 만약 2쪽을젖혀 단수친다면 黑3이하 9(도중 白6이음)까지되어 ▲표(실전의 黑15)가 그제는 활기를 띠게되는 것이다。

白22가 당연하며 또한 시의호착임。여기서 徐6단의 고민은 시작되고 한편 河7단인즉『白14를 두게되어 기분이 사뭇 좋았는데 22까지 둔 때문에 배뜨자순풍인가 생각했다』고한다。



黑23이어 려웠다。이 수로 「가」에 잡으면 白「나」로늘어 22의 黑1점과 15가 허해진다。그래서 하는수 없이 23으로 모해나갔는데 이때 白24가 지나친「멋」이었다。河7단은 좌변을 24로도 안전하게 지킬수있고 또 다음「다」로 젖히는맛이 기분좋아서 매력을 느꼈을지 모른다。그러나 이 점 때문에 뒷날 어려운한판을 좌변에서 당하게 된다。

---

# 한국、泰B팀에 大勝

## 킹스컵蹴球 소나기슛 5-0

【방콕2日=聯合】 한국대표축구팀은 2일밤 방콕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킹스컵축구대회 B조예선 1차전에서 泰國B팀을 5—0으로대파, 서전을 장식했다。

한국대표팀은 전반 20분께 邊炳柱가 첫골을 따내고 후반2분 趙廣來가 강슛을 성공시켰다。이어 15분에는 黃石根, 20분에는 李泰昊, 40분에는 崔淳鎬가 각각 1골씩을 차례로 넣어 5—0으로 대승했다。

한편 이에앞서 벌어진 경기에서 네팔은 필리핀을 1—0으로 누르고 1승을 기록했다。한국은 5일밤 말레이지아와 예선 2차전을 갖는다。

### 88 서울올림픽에 탁구 單複式채택 에반스卓聯회장

국제탁구연맹(ITTF)의 에반스회장은『오는 88년 서울올림픽의 탁구경기는 남녀단복식등 4개종목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ITTF관계임원등 일행 6명과 함께 崔元碩대한탁구협회장의초청으로 내한한 에반스회장은『부다페스트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과 경기종목을 협의한결과 남녀개인단식외에 복식도 추가할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하고『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남녀단체전 추가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방한목적을 밝혔다。

그는『개인전 출전선수는 남자64명, 여자32명이될것』이라고 밝혔다。

### 企銀 단독先頭 星武꺾고 4勝 蹴球 코리안·리그

【春川】 企業銀行은 실업축구 코리언리그 10일째 경기에서 星武를 1—0으로 제압, 4연승을 단독 선두에 나섰다。

또 現代自動車는 商業銀行에 2—1로 역전승, 2승1패를 기록했다。

2일 春川공설운동장서 벌어진 경기에서 企業銀은 전반3분 HB朴政一의 센터링을 FW劉永彬이 골문정면에서 잡아 강슛, 결승점을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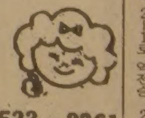
現代自動車는 전반19분 商業銀 FW河斗鳳에게 선취골을 내줬으나 후반 13분 FW金泰善의 타이골과 36분 FW張炯坤의 중거리 결승골로 역전승했다。

◇제10일전적

현 대 2—1 상업은
(2승1패) (1승2패)

기업은 1 (1—0, 0—0) 0 성 무
(4승) (1승2무1패)

【聯合】

533—2361

김명종 한약방

첩,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밴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Eglinton Keele CHINA HOUSE Bathurst Bayview Bloor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한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 장 의 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조 지 섭

##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 한국안내광고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 구 인

사람을 찾음.
정경희(여) 부군 MR. 양.
부산태생으로 10여년전에 오타와에서 결혼
딸이 10~12살 정도 됐을것으로 짐작.
찾는이: 미국 발티모 최선희
집: 1-301-256-9088
B: 1-301-686-0192
혹은 몬트리얼 조병철
집: 1-514-486-7945
B: 1-514-484-3541

미치 일본 식당에서 일하실 요리사와
혹은 견습요리사 구함.
459 Church St. Tor.
전화 : 924-7501( 오후12 : 30~오후6 : 00)

양복점 기술자 구함
남자 테일러, 여자재단사
중국인이 경영하는 고급양복점으로 작업환경이
좋고 고급기술을 습득하기에 좋은곳.
희망자는 직접 내방하기 바람.
737 Broadview Ave. Toronto 부로드뷰와댄포스남쪽

디자이너를 위한 손으로 짜는(Handknitter)
재봉일 하실분.(영어를 할수 있어야함)
전화 : 487-7779 Kathy

청소 하청하실분 구합니다.
월 $500씩 두곳, 경험 1년이상 있으신분
Hwy 401 × 이스링톤. 전화 : 493-0320, 444-1322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오후 6시~밤11시) Queen St. E.
전화 : 466-3995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경

일본음식점에서 부엌일 도우실분과
Handyman (Part time) 구함
195 Richmond St. W. 전화: 977-9519 Harry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7

유경험 여자 캐셔 구함
1220 Davenport Rd.
전화 : 656-3020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롱), 531-0773(김)

아이스크림 스토아에서 일할 학생구함.
(미시사가지역 여학생환영) 전화 : 277-8772

Mac's Milk Store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주3일 : 금, 토, 일)
26시간 1 Week
전화 : 221-9051

##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소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1. 대지와 건물및 도너스숍
넓은 대지에 집이나 스토어 건축가능. 40만불 요구
다운페이 15만불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Variety & Hardware Store 매매
주매상: $9000이상 권리금및 Stock은 All Cash
요구. No Mortgage! 리스 4년+옵션 5년
361 Carrville Road. Tornhill(Hill Crest Mall옆)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le Store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5년+옵션5년
394 Browns Line, Etobicoke, Mr. Kim

모든 면허가 나와있는 레스토랑(Tavern)
급매.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겸해서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임. 매우 좋은조건의 Rent
와 Long Lease. 좌석 : 156석
위치 : 21 Vaughan Rd.
Ask Paul or Ivan 전화 : 656-9503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OPEN 1년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코저 함.
주매상 $3,500 렌트 $500
두대의 비데오 머신에서 렌트비 카바함.
전화 : 961-9780(B) (오후6시안으로)

무스코카지역에 있는 부동산 매매
그로서리가게(과일, 채소등)외 집
가족끼리 운영하기에 알맞은 사업
큰 파킹장이 옆에 있음
※관심있으신 분은 부라운·로버트에게 전화주세요.
전화 : 789-1724

큰 규모의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2,400 sq. ft. 주매상 : $7,500
아스킹 : 7만불+스탁
전화 : 769-9704(5시이후)

건물및 상점(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현주매상 : $8,500~$8,800 아스킹 : $229,500
로타리오 머신 (별도)
237 ParkLawn Rd.(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새로운 장비 갖춘 Mr. Donuts Franchise
위치 : Young St. North Thornhill
넓이 : 1500 Sq. Feet
영업시간 : 6 : 30 Open - (24 Hours)
좋은조건의 Lease. Call Mr. Pridham 833-3095
The Gormley Group Realestate

좋은위치에 3 Bed Room 포함한 토론토
북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의 수입좋은 가게 매매
Royal Trust Real Estate
전화 : 773-6101. Bud Eige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d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그로서리 기프트 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위치는 동쪽
연락처 : 281-2730 강(11시~5시)

성업중인 그로서리 및 버라이어티 딸린
건물 급매
전화 : 532-8260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 ±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Using Language Labor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months (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Milk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 King St. E. (Bowman Ville. 오샤와 지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ac's Milk 급매
전화 : (B) 368-0686, (R) 292-2024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버거 펙토리 매매
위치 : 보닝싸이드×세파드. Call Jhon 또는 Art.
오후5시에서 9시사이에 전화주세요. 전화 : 281-0288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Hamilton지역)
주매상: $4,500. 아스킹: $45,000+스탁. 리스: 7년+10년(옵션)
리스: 7년+10년(옵션) 전화 : 1-388-4825 (Mr. 유)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200-4,500. 아스킹 : $29,000+스탁
1000 Pape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Variety &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000이상. Rent & Lease 좋은조건
704 Wilson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아이스크림집 매매
전화 : 752-4766(Mr. Bang)

써브-마린 가게 급매 아주 좋은 조건임. (Barrie중심지역)
전화 : 1-705-722-7422 Mr. Eloi 낮12시-오후10까지연락
낮12시~오후10시까지 연락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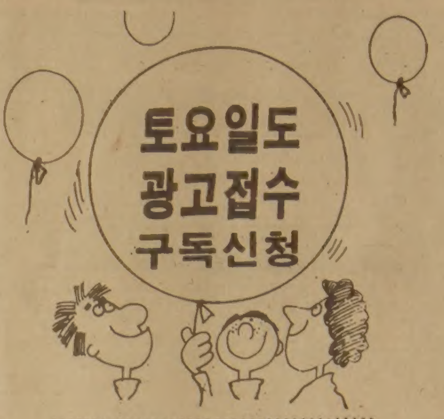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ck
Shop)주매상 : $3000이상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 (Oakville)

## 하우스 렌트

클링톤하우스 ·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교통이 편리한 다운타운 지역.
Furnished 1Bed Room($달 180)독신환영
전화 : 763-3289, 365-1489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옆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한국일보광고부

##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청 솔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습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위)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남녀커트, 파마및 스타일 전문
631 Bloor St. W. (시온이행 사2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 번 역 및 통 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